월간 북한 동향

Monthly Report on North Korea

2019년 9월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과 언어표현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가. 언어표현 및 어문 규정 적용

o 대내·대남·대외 동향 주요 내용: <u>북한 원문 그대로 적용</u>

※ 예외 경우

① 북한 정권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찬양 수식어 및 '동지' 표현은 삭제
ex)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 '김정은'
② 국내 인사 실명 비난 시, 이름의 성(姓)만 공개 ex) 홍길동 → '홍OO'
③ 특정 행사 관련 내용은 △일시 및 장소 △참석자(주석단, 동행, 맞이 등) 별도 정리

o 개황·동향 제목·동향 개요·주간 보도일지·주요인물 동정: <u>국립국어원 기준 적용</u>

※ 단, 북한 원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인용부호와 함께 표기

o 남·북한 표현 차이 및 띄어쓰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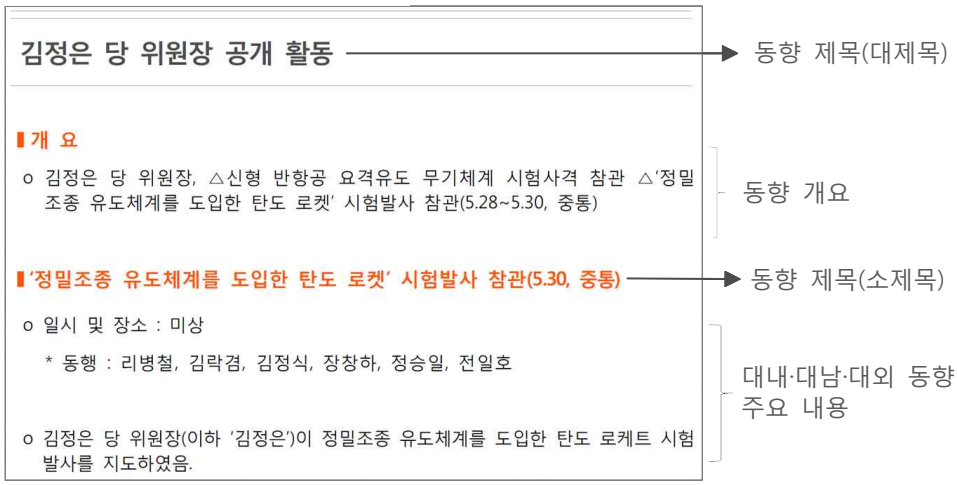
① 간단한 표기차이는 '괄호'로 보완 ex) 루출(누출), 페허(폐허)
② 북한식 표현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 처리
③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용

나. 북한 주요 인물 직책 표기

o 북한 원문을 그대로 적용하되 <u>직책이 여러 개일 경우, 대표 직책만 표기</u>

o 동일한 '대내·대남·대외 동향 주요 내용'에서 주요 인사들이 여러 번 언급될 경우, <u>직책은 최초 1회만 표기하며 이후에는 이름만 표기</u> ('주요인물 동정' 및 '주간 보도일지'에서는 대표 직책 표기)

※ 대내·대남·대외 동향 페이지 구성



2. 본 자료의 내용들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원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각 자료들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o 주간 보도일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보도일'을 기준으로 작성
o 동일한 내용을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경우, 보도순서에 따라 출처 표기

3. 본 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현 및 시기에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개황 ····· 1

대내동향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 ····· 5
박봉주 당 부위원장, 현지 요해 ····· 9
김재룡 내각 총리, 현지 요해 ····· 11
제14차 전국교원대회, 3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 14
김정은 '인민사랑·영도력' 찬양 ····· 16
제13호 태풍 피해 최소화 위한 '긴급대책 수립' 보도 ···· 18
국가비상재해위, 제13호 태풍 피해발표 "5명 사망, 3명 부상" ·· 19
'추석날' 맞아 각 열사릉·열사묘에 화환 진정 ····· 20
'자력갱생' 통한 경제·국방의 자립·자위 강조 ····· 21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 총 집중' 독려 ····· 22
제14차 전국교원대회(9.3) 성과 강조 교원·교육간부 독려 ·· 23
김정숙 '사망 70주기' 중앙추모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24
기동예술선동대 결성 40주년 기념보고회 ····· 25
만수대예술단조직 5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 27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폐막식 진행 ····· 28

대남동향

'미 중거리미사일 배치 검토, 전술핵무기 재배치 기회' 주장 비난 29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 관련 보수정당 입장 비난· 31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계획' 관련 비난 ····· 32
'국방예산 증액' 관련 우리 군 비난 ····· 33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관련 '납치 시인' 주장 및 송환 촉구 ··· 34
정부 예산 증액 관련 비난, "민족공조만이 유일한 출로" 주장 ··· 35
정부 대북정책 비난, "친미굴종 정책" ····· 36
국방예산 증액 관련 "군사적 망동" 거론 비난 ····· 37

대외동향

'국가조정위' 대변인 담화, 북 해킹 관련 대북제재위 보고서 비난 ···· 38
리용호 외무상 -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 회담 ····· 39

왕이 중국 외교부장,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 방문 ····· 40
미 공화당 상원의원의 '불안정한 독재자' 발언 비난 ····· 41
미·일 해상연합훈련 및 합동군사연습 비난 ····· 42
각국 정상,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권 수립 71주년' 축전 43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9월 하순 북미실무협상 용의" 45
일본 최고재판소 '조선학교 상소 기각' 비난 ····· 46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관련 미국 반응 비난 ····· 47
리수용 당 부위원장 -라오스 부통령 회담 진행 ····· 48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북미대화 관련 입장불변 강조 ··· 49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문답,
"일본 선박 퇴거조치는 정당한 주권행사" 주장 ····· 50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 ····· 51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 축전에 대한 답전 ····· 52
김정은 위원장, 쿠바 당 제1비서와 내각 수상 축전에 답전 ····· 53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 베네수엘라 제헌민족회의 의장 간 회담 54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중국 창건 70주년' 연회 마련 ····· 55
주북 중국 특명전권 대사, '중국 창건 70주년' 연회 마련 ·· 56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 57
북 대표단 단장, 23일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 ····· 58
북 대표단 단장, '의료봉사 관한 UN 고위급회의' 연설 · 59
UN군사령부 역할 확대 관련 미국 비난 ····· 60
북 대표단 단장, 'UN총회 비동맹운동 외무장관 회의' 연설 ···· 61
UN총회 제74차 회의기간 G77 외무장관회의, 27일 진행 ·· 62

주요인물 동정 ····· 63

월간 보도일지 ····· 83

이달의 약사 ····· 95

개황

대내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

o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 현지지도(8.31, 노동·중통·중방)

o 제13호 태풍 '링링' 관련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긴급 소집(9.6, 노동·중통·중방)

o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9.7, 노동·중통·중방)

o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현지지도 및 국방과학연구 부문 지도 간부들·과학자·기술자들에게 '감사' 전달(9.11, 중통·중방)

◆ 박봉주 당 부위원장 현지 요해

o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황해남도 태풍 피해지역 여러 합동농장을 현지 요해(9.14, 중통)

o 박봉주 당 부위원장, 평양시 협동농장 현지 요해(9.18, 중통)

o 박봉주 당부위원장, 함경남도 여러 단위 현지 요해(9.23, 중통)

o 박봉주 당 위원장이 △평성관개기계공장 △평성합성가죽공장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장 등 평안남도 여러 단위를 현지 요해(9.28, 중통)

◆ 김재룡 내각 총리 현지 요해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서해갑문-신천-강령, 옹진물길 1단양수장과 △은률군 읍협동농장 △서곡협동농장 △황해북도 황주군 순천협동농장 등 황해도 농업부문 여러 단위를 현지 요해(9.2, 중통)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평양베어링공장을 현지 요해(9.13, 중통)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양책베어링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봉화화학공장 △12월5일청년광산 △신의주마이싱공장 등 평안북도 여러 단위를 현지 요해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평양자동화기구공장 △룡성베아링공장 △평양고무공장 △장산광산△평양연마석공장 등 인민경제 여러 단위를 현지 요해(9.28, 중통)

◆ 제14차 전국교원대회, 3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9.4, 중통·중방·노동)

◆ 김정은 '인민사랑·영도력' 찬양(9.6, 노동·근로자 공동논설)

◆ 제13호 태풍 피해 최소화 위한 '긴급대책 수립' 보도(9.7, 중통)

◆ 국가비상재해위, 제13호 태풍 피해발표 "5명 사망, 3명 부상"(9.8, 중통)

◆ '추석날' 맞아 각 열사릉·열사묘에 화환 진정(9.13, 중통·중방)

o 당·정 간부 및 무력기관 성원, '추석날' 맞아 대성산혁명열사릉·신미리애국열사릉·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에 화환 진정

◆ '자력갱생' 통한 경제·국방의 자립·자위 강조(9.16, 중통)

◆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 총 집중' 독려(9.16, 노동)

◆ 제14차 전국교원대회(9.3) 성과 강조 교원·교육간부 독려(9.19, 중통·노동)

◆ 김정숙 '사망 70주기' 중앙추모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9.22, 중통·중방)

◆ 기동예술선동대 결성 40주년 기념보고회(9.27, 노동)

◆ 만수대예술단조직 5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9.27, 중통)

◆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폐막식 진행(9.27, 중통)

대남동향

◆ '미 중거리미사일 배치 검토, 전술핵무기 재배치 기회' 주장 비난(9.4, 중통)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 관련 보수정당 입장 비난(9.5, 중통)

◆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계획' 관련 비난(9.6, 중통)

◆ '국방예산 증액' 관련 우리 군 비난(9.7, 노동)

◆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관련 '납치 시인' 주장 및 송환 촉구(9.18, 우리민족끼리)

◆ 정부 예산 증액 관련 비난, "민족공조만이 유일한 출로" 주장(9.23, 우리민족끼리)

◆ 정부 대북정책 비난, "친미굴종 정책"(9.26, 우리민족끼리)

◆ 국방예산 증액 관련 "군사적 망동" 거론 비난(9.27, 우리민족끼리)

대외동향

◆ **'국가조정위' 대변인 담화, 북 해킹 관련 대북제재위 보고서 비난**

o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 담화, '북,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20억 US$ 해킹 탈취' UN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비난(9.1, 중통)

◆ **리용호 외무상 -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 회담(9.3, 중통)**

◆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일행, 안주시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 방문(9.4, 중통)**

◆ **미 공화당 상원의원의 '불안정한 독재자' 발언 비난(9.5, 중통 논평)**

◆ **미·일 해상연합훈련 및 합동군사연습 비난(9.8, 중통·민주조선)**

◆ **각국 정상,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권 수립 71주년' 축전(9.9, 중방·노동)**

o 중국·러시아·쿠바·싱가포르·시리아 정상,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권 수립(9.9절) 71주년' 축전

◆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9월 하순 북미실무협상 용의"(9.9, 중통)**

◆ **일본 최고재판소 '조선학교 상소 기각' 비난(9.9, 중통·민주조선)**

o 일본 최고재판소의 '고등학교 무상화 적용 제외 관련 조선학교의 상소 기각' 비난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관련 미국 반응 비난(9.10, 노동신문)**

◆ **리수용 당 부위원장 - 라오스 부통령 회담 진행(9.10, 중앙통신)**

◆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북미대화 관련 입장불변 강조(9.16, 중통)**

o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입장불변 강조 "제도 안전·발전 장애물 제거될 때 비핵화 논의 가능"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문답, "일본 선박 퇴거조치는 정당한 주권행사" 주장(9.17, 중통·중방)**

o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문답, 일본 선박의 배타적 경제수역 불법 침입(8.23~24.) 퇴거조치는 정당한 주권행사 주장

◆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9.20, 중통)**

o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 언급 관련,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기대' 표명

◆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 축전에 대한 답전(9.20, 중통)**

o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 정권 수립(9.9절) 축전에 대한 답전, '북-중 친선 계승 발전' 강조

◆ **김정은 위원장, 쿠바 당 제1비서와 내각 수상 축전에 답전(9.21, 중통·중방)**

o 김정은 위원장, 쿠바 당 제1비서와 내각 수상의 '북 정권 수립(9.9절)' 71주년 축전에 답전

◆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 베네수엘라 제헌민족회의 의장 간 회담 진행(9.24, 중통)**

◆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중국 창건 70주년' 연회 마련(9.25, 중통)**

o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옥류관에서 '중국 창건 70주년' 연회 마련

◆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9.27, 중통)**

o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 기대, 미국의 차후 동향을 주시할 것"

◆ **북 대표단 단장, 23일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9.27, 노동)**

◆ **북 대표단 단장, '의료봉사 관한 UN 고위급회의' 연설(9.28, 노동)**

o 북 대표단 단장, 23일 '전반적 의료봉사에 관한 UN총회 고위급회의' 연설

◆ **UN군사령부 역할 확대 관련 미국 비난(9.29, 노동)**

◆ **북 대표단 단장, 'UN총회 비동맹운동 외무장관 회의' 연설(9.29, 중통)**

o 북 대표단 단장, 26일 'UN총회 제74차 회의 비동맹운동 외무장관 회의' 연설

◆ **UN총회 제74차 회의기간 G77 외무장관회의, 27일 진행(9.30, 중방)**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 현지지도(8.31, 노동·중통·중방)

o 일자 및 장소: 날짜 미상,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

- 수행: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조용원 당 제1부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 맞이: 김정관 인민부력성 부상

o 평안남도 양덕군을 독특한 다기능 체육·문화 휴양지, 료양치료기지로 변모시키려는 당의 구상을 받들고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과 도내 인민들, 돌격대원들의 견인불발의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대상건물 골조공사와 지붕씌우기공사, 내외부 미장공사가 결속되고 스키장 주로닦기와 도로개설, 수로공사가 기본적으로 완성됨으로써 전변된 현대적인 온천관광지구의 웅장한 자태가 드러났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며 당에서 구상한 대로 자연지대적 특성을 잘 살리고 주변의 환경과 정교하게 어울리는 특색 있는 관광지구가 형성되였다고 만족해하면서 구획 구분과 배치가 실용적이며 매 건물들이 건축미학적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스키장과 온천휴양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정서 생활분야가 창조되였다면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는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리념이 철저히 구현된 창조물이라고,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한 것이며 인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스키장에 설치할 수평승강기와 끌림식삭도를 비롯한 설비제작을 모두 주요 군수공장들에 맡겨보았는데 나무랄 데 없이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온천휴양과 료양시설들에 대한 운영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스키장의 체육 기자재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 올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대상공사를 질적으로 마무리하고 해당 부문에서 봉사준비도 잘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며 넉 달 만에 와보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천지개벽 되였다고, 군인건설자들이 폭풍 같은 기세로 한 개 도시구획 형성과도 같은 방대한 공사를 해제꼈다고 하면서 인민군적으로 제일 전투력 있는 이 부대에 건설을 맡기기 잘했다고, 전문건설부대 못지않게 건설을 잘한다고, 정말 힘이 있는 부대라고 높이 평가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무조건성, 결사관철의 위력으로 실천해나가는 인민군대가 있기에 당의 구상은 곧 실천의 력사로 씌여져왔다고 하면서 이런 군대와 함께 혁명의 길을 개척해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긍지로 여긴다고 말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당의 자랑이며 국가의 기둥인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드높이 인민의 아들딸답게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인민의 충복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보답해나가기를 바란다는 믿음을 안겨주었음.

▌제13호 태풍 '링링' 관련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긴급 소집(9.6, 노동·중통·중방)

o 일자 및 장소: 9.6, 장소 미상

o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반적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13호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확대회의를 9월 6일 오전 긴급소집하고 국가적인 비상재해방지대책을 토의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이 비상확대회의를 지도하였음.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군들, 도당위원장들, 군종·군단급 단위 지휘관들,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음.

o 비상확대회의에서는 태풍13호의 세기와 예상자리길, 특성 및 예상피해지역과 규모에 대한 분석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처하여 국가적인 긴급비상대책들을 세우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태풍13호가 조선반도를 관통하며 강한 중형급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 닥쳐들고 있지만 당과 정부의 간부들로부터 중앙과 지방의 일군들에 이르기까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한 인식에 포로되여 속수무책으로 구태의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태풍13호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총궐기시킬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당, 근로단체 조직들, 보안·보위기관들에서 산과 계곡, 하천, 낮은 지대, 침수 위험구역, 산사태 의심구역, 지하공간, 붕괴 위험 건물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한 활동을 책임적으로 시급히 조직할 데 대하여 말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계단식 언제(댐)들이 있는 강하천들에 대한 지휘통신체계를 정비·보강하여 저수지들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조절하기 위한 통일적이며 능동적인 지휘를 실현할데 대하여 말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전력공업 부문이 특별히 각성하여 태풍피해를 미리 막는 데 모든 력량을 집중하며 제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업 부문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였음. 인민군대를 동원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지시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인민무력성 책임일군들이 태풍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협동작전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체계를 유지할 데 대하여 말하였음.

- 사회와 군대의 모든 단위들에서 장악보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중앙적 재해관리 및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대책할 데 대하여 지적하였음.

o 회의에서는 또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였음.

-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박정천 륙군대장을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새로 임명하였으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의 지휘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운 간부들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결속하면서 인민군대가 자연재해로부터 인민의 안녕과 생명재산을 지켜내는 것을 응당한 본분, 마땅한 사명으로 여기고 맡겨진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누구도 대신 못할 나라의 억센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음.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9.7,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o 일자 및 장소: 9.6, 장소 미상

- 수행: 김재룡 내각 총리,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 전광호 내각 부총리,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o 김정은 위원장이 9월 6일 제14차 전국교원회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음.

o 김정은 위원장이 촬영장에 나오자 전체 참가자들은 무한한 격정 속에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렸음.

o 김정은 위원장은 교원들은 조국의 밝은 미래를 키우는 공산주의자이며 참다운 애국자, 직업적 혁명가이라고 하면서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된 이번 대회가 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대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잘 알고 교육 부문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교원들과 교육일군들이 당의 주체적 교육발전 혁명방침 관철의 직접적 담당자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후대교육사업에 량심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이역 땅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족교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헌신분투하며 애국충정의 바통을 이어가고 있는 총련교육자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헤아려주며 총련교육 일군대표단 성원들과 특별히 따로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었음.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현지지도 및 국방과학연구 부문 지도 간부들·과학자·기술자들에게 ‘감사’ 전달(9.11, 중앙통신·중앙방송)

o 일자 및 장소: 9.10, 장소 미상

- 수행: 박정천 총참모장, 김여정·조용원·리병철 당 제1부부장, 김정식 당 부부장,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군 상장, 정승일 당 부부장

o 김정은 위원장이 9월 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에서 지도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의 전투전개시간을 측정해보며 이번 시험사격에서 확증할 지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였음.

o 두 차례에 걸쳐 시험사격이 진행되였음.

o 또다시 진행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은 시험사격 목적에 완전부합되였으며 무기체계 완성의 다음 단계 방향을 뚜렷이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는 전투운영상 측면과 비행궤도 특성, 정확도와 정밀유도기능이 최종 검증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되는 련발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한 우리 식 전술유도무기들의 생산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국방과학 분야의 최첨단 설정 목표들을 줄기차게 점령해 나가는데서 나서는 당면한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밝히였음.

o 전체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지도간부들은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다져주고 주체적 국방공업 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최고령도자 동지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하면서 당의 령도를 높은 실력과 실천으로 충실하게 받들어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국방과학연구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 있었음.

박봉주 당 부위원장, 현지 요해

▌개 요

o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황해남도 태풍 피해지역 여러 합동농장을 현지 요해(9.14, 중통)

▌주요 내용

o 박봉주 당부위원장은 옹진군, 강령군, 연안군을 비롯한 도안의 협동농장들을 돌아보면서 농작물과 농경지들의 피해정형을 료해하고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고무해주었음.

o 현지에서 태풍피해복구사업과 관련한 협의회를 가지였음.

- 태풍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였음.

▌주요 내용(9.18, 중앙통신·중앙방송)

o 락랑구역 남사협동농장과 사동구역 송신남새전문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과학농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좋은 작황을 마련해가고 있음.

o 박봉주 당부위원장은 벼강화재배방법을 도입한 포전들의 작황상태를 료해하면서 일군들이 알곡증산의 예비가 과학농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올해 농사결속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또한 현실에서 벼강화재배방법의 우월성이 확증된데 맞게 용배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영농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등 재배면적을 대대적으로 늘이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였음.

▌주요 내용(9.23, 중앙통신)

o 영광군과 장진군의 태풍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살림집건설과 도로복구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을 고무해주었으며 복구사업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였음.

o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돌아보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의창발성과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켜 맡겨진 비료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며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여 생산을 활성화할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또한 룡성기계련합기업소,함흥모방직공장,함흥메기공장 등을 현지 료해하고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개 요

o 박봉주 당 위원장이 △평성관개기계공장 △평성합성가죽공장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장 등 평안남도 여러 단위를 현지 요해(9.28, 중통)

▌주요 내용

o 평성관개기계공장을 돌아보면서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강화하여 관개용 뽐프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이곳 로동계급의 성과를 고무해주었으며 생산공정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고 능력을 확장할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평성합성가죽공장의 원료공급실태를 비롯하여 생산정형을 료해한 박봉주 당 부위원장은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여 질좋은 합성가죽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련관단위들에서 필요한 전력과 자재보장을 짜고들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순천린비료공장건설장,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장을 현지료해하고 건설물의 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을 실리에 맞게 꾸리는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였음.

김재룡 내각 총리, 현지 요해

▌개 요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서해갑문-신천-강령, 옹진물길 1단양수장과 △은률군 읍협동농장 △서곡협동농장 △황해북도 황주군 순천협동농장 등 황해도 농업부문 여러 단위를 현지 요해(9.2, 중통)

▌주요 내용

o 김재룡 내각총리는 서해갑문-신천-강령, 옹진물길 1단양수장과 은률군 읍협동농장, 서곡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물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며 침강정식우물을 비롯한 실리 있는 지하수시설을 더 많이 건설하고 물원천 확보사업을 예견성 있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지대적 특성에 맞는 자연에네르기개발에 힘을 넣을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대책과 설비, 자재보장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음.

o 이에 앞서 김재룡동지는 황해북도 황주군 순천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관개용수 보장실태를 료해하였음.

▌개 요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평양베어링공장을 현지 요해(9.13, 중통)

▌주요 내용

o 김재룡 내각총리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CNC 설비들을 원만히 갖추고 생산과 수리정비를 정상화함으로써 인민경제 수요를 충족시키며 기업소를 현대화하는데서 일군들이 창조적 지혜를 발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평양베아링공장에서 김재룡동지는 생산공정을 자동화, 흐름선화하고 과학기술 보급실을 공장실정에 맞게 운영하며 능률높은 설비들을 받아들여 소재실수률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낮출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자력갱생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구현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대책적문제들이 강구되였음.

▌개 요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양책베어링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봉화화학공장 △12월5일청년광산 △신의주마이싱공장 등 평안북도 여러 단위를 현지 요해(9.24, 중앙통신)

▌주요 내용(9.24, 중앙통신)

o 락원기계련합기업소와 량책베아링공장의 생산실태를 료해하면서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소재실수률을 높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능률 높은 기계설비와 질 좋은 베아링들을 생산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신의주화장품공장과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에서 질좋은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과 함께 새 제품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한 알의 낟알도 허실 없이 말끔히 거두어들일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일군들이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경제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생산을 활성화하며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o 봉화화학공장, 12월5일청년광산, 신의주마이싱공장 등을 돌아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설비와 생산 공정들을 기술집약형, 로력절약형으로 개조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생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개 요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평양자동화기구공장 △룡성베아링공장 △평양고무공장 △장산광산△평양연마석공장 등 인민경제 여러 단위를 현지 요해(9.28, 중통)

▌주요 내용

o 평양자동화기구공장과 룡성베아링공장의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생산과 기술관리공정을 개발 창조형으로 전변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였음.

o 평양고무공장을 돌아보면서 김재룡은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기술개건을 다그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새 제품개발 사업을 힘 있게 벌릴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장산광산과 평양연마석공장에서 전력보장대책을 세우며 생산공정들을 에네르기 절약형, 로력절약형으로 개조하여 생산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것과 함께 질적 지표에 따르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엄격히 지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제 등을 토의하였음.

o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해나가며 경영관리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련관단위들과의 협동을 강화하여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였음.

제14차 전국교원대회, 3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주요 내용(9.4,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o 김재룡 내각총리, 박태성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전광호 내각부총리, 최동명 당 부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도당위원장들, 모범적인 교원들과 교육일군들, 중앙과 도, 시, 군의 교육부문 지도일군들,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에 자원진출한 교원들, 교육자가정과 부부교원, 교육사업을 적극 도와준 후원단체를 비롯한 련관단위 일군들, 신길웅 총련교육일군대표단 단장이 참가하였음.

o 대회에서는 최근 년간 당의 교육혁명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총화하고 교육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이 토의 되였음.

o 대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로작《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직업적 혁명가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를 박태성 당부위원장이 전달하였음.

o 로작에서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켜 나라의 교육수준을 빠른 기간에 가장 발전된 수준에 확고히 올려세워 모든 학생들을 부강조국을 떠메고나갈 혁명인재로 키우려는 당의 의도와 결심, 교육혁명의 전초병들인 교원들의 사명과 임무, 나라의 전반적 교육수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실천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줌.

o 대회보고를 김재룡 내각총리가 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매우 중시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지도하여 주시였으며 로작《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직업적혁명가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를 발표하여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줌.

o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이후 지난 5년간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전반적 교육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력사의 나날이였다고 말하였음.

o 지난 5년간 나라의 교육사업에서 전진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이 원만히 실시되여 중등일반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된 것은 주체교육발전사에 특기할 성과이라고 강조하였음.

o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자력갱생대진군은 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함.

o 모든 교원들과 교육부문 일군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일편단심 높이 받들고 인재교육전선의 전초병,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o 조선소년단축하단이 대회장에 입장하여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 드리는 축하시 《축하를 드려요 온 나라 선생님들에게》를 랑송하였음.
- o 대회에서 토론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을 받들고 실리 있고 우월한 교육방법을 창조하여 교수사업에 구현해나가는 과정에 이룩한 경험들에 대하여 언급하였음.
- o 토론들을 통하여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지 못한 결함들도 분석 총화되였음.
- o 토론자들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난날의 그릇된 사상관점과 일본새를 완전히 털어버리고 주도성, 창발성, 완강성을 발휘하여 교육사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결의를 다지였음.

김정은 '인민사랑·영도력' 찬양

▌개 요

o 김정은 '인민사랑·영도력' 찬양(9.6, 노동·근로자 공동논설)

o 제목: <우리 공화국은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로 무궁 번영할 것이다>

▌주요 내용

o 이 시대는 우리 공화국이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리고 인민이라는 부름이 뚜렷이 부각되는 위대한 시대임.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 이 말속에 최고령도자의 국가건설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이 집대성되여 있고 시대와 력사 앞에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이 함축되여 있음.

o 인민은 나라의 근본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임. 때문에 인민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건설에서 관건적이고 중핵적인 과제로 나섬.

o 김일성, 김정일 수령들의 령도에 의하여 나라를 상징하는 국호와 국기, 국장에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자기의 본태를 새겨 넣고 모든 국가활동을 인민을 중심으로 진행해올 수 있었음.

o 우리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시기에 적대세력들은 그 무슨 《체제변화》, 《진로변경》에 대하여 떠들면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억측하였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 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한 치의 편차도 없이 끝까지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우리 공화국을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로 강화·발전시켰음.

o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추대한 것은 국가의 무궁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력사적 계기로 됨. 김정은 위원장이 이끄는 공화국은 인민을 신성히 떠받들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존재방식으로 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임.

o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고 국가건설의 근본리념으로 내세운 것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공화국을 김일성 수령, 김정일 장군의 나라로 빛내여나갈 수 있는 현실적 담보를 마련한 거대한 공적으로 됨.

o 인민대중제일주의에는 김일성, 김정일 수령들이 간직해 온 이민위천의 사상이 구현되여있고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국가건설 리념이 밝혀져 있음.

o 우리 나라에서는 시국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국가의 인민적 시책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음. 세상에 나라는 많아도 어려운 시기에 그토록 많은 품을 들여 인민적 시책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나라는 우리 공화국뿐임.

o 혁명이 전진한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역할이 부단히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우리 인민이 선대 수령들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인민대중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이끌어주는 김정은 위원장의 령도의 결실임.

o 당의 령도에 의하여 과학기술전당이 전민학습의 대전당, 과학기술 보급중심으로 훌륭히 일떠서고 원격교육체계를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더욱 완비되여 평범한 사람들이 로동자 발명가, 창의고안 명수로 자라나 국가발전에서 한 몫 단단히 하고 있음.

o 류례없는 도전과 시련이 막아서고 있지만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음. 전진하는 우리 국가의 힘은 불패이라는 것, 이것이 지난 8년 간의 력사가 확증한 또 하나의 진리임.

o 우리 나라에서는 부모 잃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국가의 관심밖에 놓여있는 사람, 인민정권의 시책 밖에서 앞날을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찾아볼 수 없음. 올해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품을 진정한 삶의 품으로 여기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지켜가고 있음.

o 김정은 위원장의 보폭에 발걸음을 맞추어 삼지연군 건설장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 전역들마다에서 오늘과 래일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또 다른 신화적인 속도가 창조되고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 있는 것임.

o 김정은 위원장은 하나를 창조해도 세계적인 것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줌. 경공업공장을 찾아 인민소비품의 질이 낮은 것을 두고 누구보다 안타까와 하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준 이야기, 건설장을 찾아 몸소 그림까지 그려가며 일군들의 시야를 틔워준 혁명일화도 전해지고 있음.

o 김정은 위원장의 열망에 의하여 금산포젓갈가공공장, 평양화장품공장, 원산구두공장과 같은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장들이 꾸려지게 되였으며 인민들이 선호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쏟아져 나와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음.

o 국가가 인민을 위한 거창한 작전들을 설계하고 최대속도로 밀고 나가는 것은 결코 자금이 남아돌아가거나 조건과 환경이 유리해서가 아님. 그것은 하루빨리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확고하고 그 실천이 위대하기 때문임.

o 우리 공화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 무궁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더욱 빛내여 나가는 것은 우리 세대에 부과된 더없이 신성한 임무임. 공화국의 공민된 자각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력사를 써나가는 열렬한 애국투사가 되여야 함. 최고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함.

제13호 태풍 피해 최소화 위한 '긴급대책 수립' 보도

▌주요 내용(9.7, 중앙통신)

- o 조선에서 강한 중형급으로 빠르게 북상하고있는 태풍13호의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음
- o 전국가적으로, 전당적으로, 전군적으로 태풍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책이 세워지고 있음.
- o 당, 정권기관, 무력기관들에서는 있을 수 있는 정황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극복대책들을 세우고 있음.
- o 기상수문국으로부터 받은 태풍이동경로를 각지에 실시간 통보해 주는 것과 함께 각종 경보수단들, 통신수단들을 리용하여 일단 자그마한 피해라도 나면 력량을 긴급 동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비상재해위, 제13호 태풍 피해발표 “5명 사망, 3명 부상”

▌주요 내용(9.8, 중앙통신)

o 조선에서 7일 14시경부터 8일 0시 사이에 영향을 준 태풍13호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음.

o 국가비상재해위원회에 현재까지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o 전국적으로 210여동에 460여세대의 살림집과 15동의 공공건물이 완전 및 부분적으로 파괴되거나 침수되었음.

o 4만 6,200여 정보의 농경지에서 작물이 넘어지거나 침수 및 매몰되었음.

o 피해가 발생한 지역들에서는 그 후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추석날’ 맞아 각 열사릉·열사묘에 화환 진정

▌개 요

o 당·정 간부 및 무력기관 성원, ‘추석날’ 맞아 대성산혁명열사릉·신미리애국열사릉·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에 화환 진정(9.13,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

o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추석날을 맞이하여 13일 화환들이 진정되였음.

o 박광호·박태성 당 부위원장, 태형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 중앙위원회 성원들, 정권기관·내각·근로단체·위원회·성·중앙기관 일군들, 시 안의 기관·기업소 일군들·근로자들이 화환 진정들에 참가하였음. 노광철 인민무력상을 비롯한 무력기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음.

o 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의 화환 진정대에,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의 화환 진정대에 진정되였음.

o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근로단체, 위원회,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과학·교육·보건·출판보도기관, 평양 시내 당·정권기관, 기업소, 대학,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음.

‘자력갱생’ 통한 경제·국방의 자립·자위 강조

▌개 요

o ‘자력갱생’ 통한 경제·국방의 자립·자위 강조(9.16,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국가사회제도를 발전시키는데서 고정불변한 방식이란 있을 수 없으나 어떤 경우에도 자체의 힘을 부단히 길러 자력으로 만사를 해결하고 비약의 지름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전진발전의 근본원리는 달라지지 않음.

o 자력갱생이야말로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중핵 중의 중핵이며 일관하게 견지하고 구현해나가야 할 항구적인 로선임.

o 자력갱생에 의한 발전방식은 오늘에 와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님.

-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우리 당은 혁명령도의 전(全) 기간 자력갱생을 국가 건설의 생명선으로 내세웠으며 자력자강의 궤도에서 한 치의 드팀이나 사소한 탈선을 몰랐음.

- 조선혁명가들의 고유한 투쟁방식이며 습벽화된 창조본때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최대로 분발·승화시켜 나라의 경제력을 최단 기간 내에 튼튼히 다지고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려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임.

o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하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에 겁을 먹고 남들을 따라 앞서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게 됨.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남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이 싹트게 됨.

o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투쟁기풍이야말로 억대의 자금이나 재부보다도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귀중한 밑천이며 공화국의 발전과 번영의 제일가는 담보임. 하기에 우리 당은 자력갱생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하고 자력갱생 교양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임.

o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만이 우리가 살길이며 전진 발전의 유일한 진로이라는 신념을 심장깊이 새기고 오늘의 혁명적 대(大)진군에서 자기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할 것임.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 총 집중’ 독려

▌주요 내용(9.16, 노동신문)

o 오늘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이라고 지적,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적기에 끝내자고 강조하였음.

o 적대세력들은 존엄 높은 공화국의 전진발전을 막아보려고 비렬하고 악랄한 제재책동에 끈질기게 매여달리고 있다고 사설은 밝혔음.

o 우리가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면 적대세력들의 제재가 10년, 20년 계속되여도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음.

o 알곡생산을 늘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 여기에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돌파구를 열어 제낄 수 있는 열쇠가 있음.

o 농사의 첫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결속을 잘하는 것 역시 알곡수확고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고리임.

- 올해에 당의 부름따라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은 한결 같이 떨쳐나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모내기와 김매기, 비배관리에 헌신의 땀을 바쳐왔음.
- 봄내 여름내 땀 흘려 지은 농사를 어떻게 결속하는가 하는 것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 결과에 달려있음.
- 여러 지역에서 태풍13호로 인하여 농작물이 넘어지고 포전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받은 조건에서 농작물의 소출감소를 최대로 줄이자면 가을걷이를 더욱 짜고 들어야 함.
-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는 것만큼 중요한 과업이 없음.

o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하루하루가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우리 조국의 국력강화와 전진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시기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함.

o 모든 력량과 수단을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총집중하여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고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고 사설은 강조하였음.

제14차 전국교원대회(9.3) 성과 강조 교원·교육간부 독려

▌주요 내용(9.19, 중앙통신·노동신문)

o 교원들은 교육대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는데서 직업적혁명가의 본분을 다하자고 강조, 얼마전에 진행된 제14차 전국교원대회는 주체교육발전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을 이루는 계기로 되였다고 지적하였음.

o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켜 나라의 교육수준을 빠른 기간에 가장 발전된 수준에 확고히 올려세워 모든 학생들을 부강조국을 떠메고나갈 혁명인재로 키우자는 것이 현시기 조선로동당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강조하였음.

o 전체 교원들과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받들어 교육대혁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

- 모든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직업적혁명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함.
- 교육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교원혁명이며 교원들은 교육혁명의 전초병임.
- 교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사회주의강국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지게 됨.
- 교원들은 당과 조국,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며《학생들을 훌륭한 혁명인재로 키워 조국의 미래를 담보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후대교육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 우리 당이 바라는 대로 교육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함.
- 교원들은 직업적혁명가로서의 높은 자질과 고상한 풍모를 지니고 당이 맡겨준 혁명의 교단을 한생을 바쳐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함.

o 모든 교원들과 교육일군들은 우리 식 교육혁명의 직접적담당자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침으로써 인재교육전선의 전초병,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감.

김정숙 '사망 70주기' 중앙추모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개 요

o 김정숙 '사망 70주기' 중앙추모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9.22,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

o 항일의 녀성 영웅 김정숙 서거 70돐 중앙추모회가 22일 평양에서 진행되였음.

o 추모회에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 성·중앙기관·무력기관 일군들,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학생들, 평양시 안의 기관·공장·기업소 일군들, 공로자들이 참가하였음.

o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광호가 추모사를 하였음.

- 김정숙이 김일성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 혁명 승리를 위해 한생을 바친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정숙은 수령 김일성수령이 친솔하는 무장대오에서 용맹을 떨치며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하는데서 특출한 공헌을 하였음.

- 김정숙은 해방 후에도 새 조국 건설로선을 받들고 당과 정규적 혁명무력, 공화국을 창건하며 주체혁명위업의 확고한 계승성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음.

- 혁명적 수령관의 투철성과 견결성에 있어서, 수령의 위업에 대한 헌신성과 희생성에 있어서 김정숙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혁명전사의 최고 귀감이였으며 충신 중의 제일 충신이였음.

o 연설자는 조국의 미래에 대한 의무감과 사랑으로 혁명의 향도성을 안아 키워 인민이 대를 이어 수령 복을 누리도록 해준 김정숙 동지의 공적은 주체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기동예술선동대 결성 40주년 기념보고회

▌주요 내용(9.27, 노동신문)

o 박광호 당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예술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 대장들, 모범적인 경제선동대원들이 참가하였음.

o 기념보고는 박광호 당부위원장이 하였음.

o 김정일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대중정치활동의 고귀한 전통을 구현하시여 기동예술선동대를 창립하여 주신 것은 우리 당이 또 하나의 위력한 선전선동력량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게 한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고 말하였음.

o 경제선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주체68(1979)년 9월 28일 전국의 시, 군과 중요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기동예술선동대를 내오도록 혁명적 조치를 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령도 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 경제선동의 전투적 위력이 더욱 힘 있게 과시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예술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자기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음.

- 그는 지난 기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전구들과 대건설전투장들에 달려나간 경제선동대원들이 선전선동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로 온 나라에 우리 당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게 하고 기적과 혁신창조에 적극 이바지한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주체의 사상론에 기초한 대중정치사업인 경제선동활동이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경제선동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증시해 주고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음.

o 김정일이 몸소 창조하신 경제선동방법을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력갱생 대진군에로 적극 불러일으킬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그는 모든 일군들과 선동대원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우리 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시키며 온 나라를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들끓게 하는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첨입식으로, 집초식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o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경제선동의 화력을 집중하며 삼지연군꾸리기 건설장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비롯한 대건설 전투장들과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서 공세적이고 다각적이며 립체적인 참신한 경제선동활동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널리 일반화할 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음.

o 모든 일군들과 선동대원들이 김정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대중을 영웅적 창조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경제 선동활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영예를 빛내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만수대예술단조직 5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주요 내용(9.27, 중앙통신·중앙방송)

o 김정일 위원장이 주체58(1969)년 9월 27일 만수대예술단을 조직하여 주심으로써 주체음악발전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음.

o 50년력사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본보기예술단체로 강화 발전되여온 자랑찬 로정이였음.

o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창조현장을 찾으시여 수령송가창작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으며 항일혁명문학예술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에서도 만수대예술단이 앞장서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 주시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만수대예술단은 김정일이 직접 조직하시고 주체예술의 본보기로 키워주신 관록 있는 예술단체이라고 하시면서 만수대정신을 기치로 추켜들고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였음.

o 당의 령도 밑에 지난 기간 만수대예술단은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으며 많은 당 및 국가표창수훈자들과 명예칭호소유자들, 2.16예술상수상자, 국제콩클수상자들을 배출하였음.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폐막식 진행

▌주요 내용(9.27, 중앙통신·중앙방송)

o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폐막식이 27일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진행되였음.

o 전광호 내각부총리,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시내근로자들과 여러 나라 명예손님, 대표단, 대표들, 국제심사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음.

o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대사관 성원들,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페막식에 초대되였음.

o 페막식에서는 축전심사결과가 발표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음.

o 김정은 위원장께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이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음.

o 페막연설을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국가영화총국 총국장 정영남이 하였음.

o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최우수영화상 : 이란예술영화《귤따는 날》
국제심사위원회 특별상 :총련기록영화《무지개의 기적》
축전조직위원회 특별상 :중국예술영화《시공간을 뛰여넘는 부르짖음》
꾸바예술영화《빵과 양파》
장편예술영화 문학상 : 이딸리아예술영화《보이지 않는 증인》
연출상 : 로련예술영화《T-34》
촬영상 : 중국예술영화《질주인생》
미술상 : 중국예술영화《방황하는 지구》
음악상 : 로련예술영화《내버린 아이》
기술상 : 중국예술영화《방황하는 지구》
음향효과상 : 로련예술영화《T-34》
만화영화상 : 중국만화영화《바람소년》
기록영화상 : 조선기록영화《화목한 대가정》
단편영화상 : 로련단편예술영화《위하여》
특별상영상 : 조선예술영화《졸업증》
중국기록영화《장예모와 그의 〈그림자〉》
중국예술영화《집》,《반부패의 총성》
카나다-아일랜드합작예술영화《무지개의 빛》
남배우주역상이 중국예술영화 《질주인생》, 녀배우주역상이 중국예술영화 《새 희극의 왕》, 남배우단역상이 로련예술영화 《기회를 잡으라》, 녀배우단역상이 벨라루씨예술영화《오락이 아니다》의 해당 배우들에게 시상되였음.

'미 중거리미사일 배치 검토, 전술핵무기 재배치 기회' 주장 비난

▌주요 내용(9.4, 중통)

o 최근 남조선에서 그 무슨 전문가로 자처하는 보수나부랭이들이 케케묵은 전술핵무기재배치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와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음.

o 미국이 아시아지역에 중거리미싸일 배치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남조선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느니,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더 큰 압박감을 줄수 있고 협상에서 유용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느니, 그것을 평시에 미국이 관리하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재배치이기 때문에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반입제한》항목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느니 하고 떠들어대고 있음.

o 이것은 어떻게 하나 미국을 자극시켜 조선반도의 평화과정을 파탄내고 남조선에 극도의 안보불안과 동족대결의식을 고취해보려는 흉심의 발로임.

o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내외호전세력들의 위험천만한 반공화국 군사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험악한 대결시대로 되돌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음.

o 진정으로 겨레의 안녕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현정세의 안정적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해야 마땅함.

o 그러나 남조선보수패당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조치들을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하다 못해 력사의 버림을 받은 전술핵무기재배치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 합리화해나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

o 여기에는 정세악화로 민중이 고통을 겪든 말든 상전의 안보환경에 더 큰 위험이 조성되든 말든 저들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으며 마음껏 활개치던 과거의 대결시대만 펼치면 그만이라는 범죄적 타산이 깔려있음.

o 핵무기배비문제를 크게 떠들어 안보위기를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인기를 올려 보수세력 규합과 재집권야욕실현에서 한몫 보자는 것이 그들이 노리는 진목적임.

o 더러운 권력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남조선을 통채로 외세의 핵화약고, 핵전쟁터로 섬겨바치는 짓도 서슴지 않는 보수무리야말로 민족의 재앙을 불러오는 우환덩어리들임.

o 역적패당의 전술핵무기재배치주장나발은 《억지력강화》는 고사하고 저들의 운명을 파멸의 구렁텅이에로 더 깊숙이 몰아넣는 자멸책으로밖에 되지 않음.

o 얼마전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자한당》패가 사리에도 맞지 않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전술핵무기재배치를 떠들고있는데 대해 《정치적리득을 꾀하려는 〈안보포퓰리즘〉》으로 락인하면서 《허황한 핵무장론을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은 정당이 될 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o 남조선인민들도 동족대결분위기, 안보위기고취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보수패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

o 조선반도평화기류에 도전하여 신성한 강토우에 핵악몽을 재현하려고 날뛰는 보수패거리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 관련 보수정당 입장 비난

▌주요 내용(9.5, 중통)

o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기로 한 결정을 둘러싸고 남조선보수패당의 친일매국적정체가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

o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당국의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일본과의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 《국가안보의 축을 스스로 흔드는 자해행위》,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 등으로 비난하면서 앙앙불락해하고 있음.

o 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는 일본의 파렴치한 과거범죄에 대한 배상회피와 횡포무도한 경제침략행위에 분노하여 반일항전에 떨쳐나선 남조선민심의 반영으로서 열백 번 정당한 것임.

o 그럼에도 천년숙적 일본에 대해서는 항변 한마디 못하고 도리여 적국을 편들면서 응당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고아대는 보수패당의 망동은 친일매국이 체질화된 역적무리들의 추악한 본태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음.

o 문제는 협정파기결정에 대한 보수패당의 반발이 순수 사대굴종의식에만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임.

o 남조선일본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매국적인 보수《정권》의 집체작이며 가장 대표적인 외교안보 적폐임.

o 협정의 반동적 본질이 공론화되고 협정파기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강해질수록 매국협정조작의 장본인인 보수패당에 대한 내외의 반감과 비난이 확대되고 보수의 재집권기도 실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함.

o 남조선 각계층은 사악한 일본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통채로 팔아서라도 더러운 집권야욕을 실현하려고 지랄발광하는 보수역적패당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함.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계획’ 관련 비난

▌주요 내용(9.6, 중통)

o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미국의 《F-35A》스텔스전투기도입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음.

o 지난 8월 21일 2대의 스텔스전투기를 충청북도 청주공군기지에 또 끌어들여 현재 6대를 반입한 상태에 있음.

o 앞으로도 전투기도입을 중단 없이 하여 올해 중에 10여대를, 2021년까지 40대를 확보하겠다고 떠들고 있음.

o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말로는 군사적 긴장상태완화와 신뢰구축에 대해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여 조선반도평화흐름을 완전차단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o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끌어들인 최신전쟁장비들이 유사시 평양을 비롯한 주요대상들을 불의에 정밀타격하고 우리를 《무력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리용되게 될 것이라고 거리낌 없이 줴쳐대고 있는 것임.

o 남조선 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최신 전쟁장비 도입을 강행하는 진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

o 앞에서는 평화의 억지웃음을 짓고 뒤돌아 앉아서는 대결과 전쟁의 칼을 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배신행위임.

o 남조선당국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확약한 북남합의들을 일방적으로 란폭하게 짓밟고 있음.

o 판문점선언발표이후 《전력의 공백》이니,《현존하는 북의 위협》이니 하고 떠들며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P-8A포세이돈》해상초계기,《패트리오트》미싸일, 특수작전용무인기,해상고고도요격미싸일 《SM-3》,공중급유기를 비롯한 첨단무장장비구입에 막대한 돈을 퍼붓고 있음.

o 미국과의 야합하에 우리를 겨냥한 각종 은페된 합동군사연습을 올해에만도 100차 이상 벌리고 미싸일발사훈련은 10여차에 걸쳐 암암리에 감행하였음.

o 제반 사실은 오늘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주범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

o 우리는 결코 겨레의 안녕과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임.

o 경고하건대 남조선당국은 우리를 겨냥한 북침전쟁연습과 최신무장장비도입강행에는 응당한 대가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함.

‘국방예산 증액’ 관련 우리 군 비난

▌주요 내용(9.7, 노동신문)

o <군사적대결기도의 뚜렷한 발로>

o 최근 남조선군부가 그 무슨 《핵 및 대량살상무기위협》과 《단거리탄도미싸일 대응》을 운운하며 다음해의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4%나 증액시켜《국회》에 제출하였음. 그것은 력대 최대규모라고 함.

o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조선 군부는 다음해 《국방예산》의 많은 몫을 정찰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스텔스전투기 《F-35A》 등 첨단전쟁장비 구입에 돌리려 하고 있음. 잠수함성능개량과 경항공모함 건조, 각종 구축함과 전투기 개발, 《신속대응사단》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였음.

o 남조선호전광들이 그 누구의 《위협》을 걸고 다음해 《국방예산》을 대폭 늘이기로 한 것은 인민들의 혈세를 최신무기구입 등 무력증강에 탕진하면서 북침전쟁 준비를 다그치고 동족과 힘으로 대결하려는 또 하나의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임.

o 보수《정권》도 무색케 하는 이번의 《국방예산》증액놀음은 말로는 《대화》와 《평화》에 대해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와 한사코 군사적으로 맞설 흉악한 기도를 드러낸 것으로서 내외의 경계심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o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국방예산》증액소동은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 합의서의 정신에 배치되고 조선반도의 평화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임.

o 지난 8월 남조선군부는 미국과 함께 우리를 겨냥한 침략적인 《련합지휘소 훈련》을 강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였음. 그런가하면 극히 도발적인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각종 공격형무장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음.

o 남조선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벌리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은 조선반도평화에 커다란 장애로 되고 있음.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책동은 량립될수 없음.

o 남조선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빚어낼 수 있음.

o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내외에서 울려나오는 규탄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함.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관련 '납치 시인' 주장 및 송환 촉구

▌주요 내용(9.18, 우리민족끼리)

o 지난 9일 남조선인권위원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진정》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해온 《북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였음.

o 그에 의하면 우리 녀성들이 본인의사가 아니라 위협과 강요에 의해 남조선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였음.

o 이번 남조선인권위원회의 불충분한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박○○패당이 반공화국 대결과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위해 감행한 극악무도한 집단유인랍치범죄의 실상이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났음.

o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016년 4월 7일 박○○역적패당은 중국 절강성 녕파에서 식당운영을 하던 지배인놈을 매수하여 우리 녀성종업원 12명을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는 천인공노할 반인권범죄를 감행하였음.

o 이것은 박○○ 역도가 심각한 정치적위기를 모면하며 특히는 19대《총선》을 앞두고 불리한 형세를 역전시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정보원깡패들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한 《북풍》모략사건임.

o 국제진상조사단도 최근 우리 녀성공민들에 대한 보수패당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집단랍치 및 인권침해》로 락인하였으며 곧 유엔인권리사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음.

o 우리 녀성공민들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뒤골방에 가두고 주위와의 접촉을 모두 차단하고도 그 무슨 《심리적안정》과 《사회정착》, 《대학입학》과 같은 판에 박은 말만 곱씹으면서 민심과 내외여론을 우롱, 기만하는 남조선당국의 반인륜적 행태에 내외각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준렬히 단죄규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함.

o 남조선당국은 《자진탈북》이니, 《정착》이니 하는 비렬한 음모를 날조해낸 죄행을 사죄하고 내외의 정당한 요구대로 강제랍치되여 끌려간 우리 녀성공민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임.

o 특히 남조선당국이 이 문제를 유야무야하려고 어리석게 놀아댄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북남관계문제들의 해결에 심각한 후과가 초래될 것임.

정부 예산 증액 관련 비난, “민족공조만이 유일한 출로” 주장

▌주요 내용(9.23, 우리민족끼리)

o 최근 남조선당국이 외교부예산을 이례적으로 11%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중 일본과의 외교관련 예산은 3.3배,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에 저들의 외교정책과 립장을 선전하기 위한 《공공외교》예산은 2.6배로 늘였으며 이외에 나라별 외교정책전략수립을 위한 예산항목을 새로 내왔다고 함.

o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외교부예산의 확대놀음을 통해 국제사회에 사대매국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리해와 지지를 구걸하고 천년숙적인 일본 것들과의 관계회복에 매달리려는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것임.

o 지금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 앞에 확약한 북남관계문제들에 대해 자기의 의무를 리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세의 눈치를 보며 외세의 지령하에 움직이고 있음.

o 북남사이에 능히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동맹관계가 우선》, 《국제공조가 기본》이라는 따위의 쓸개빠진 론리를 내세우며 북남관계를 조미관계, 《핵문제》의 종속물로 만드는가 하면 외세의 《대북제재》놀음에 대한 지지와 리행을 계속 떠들어대고 있음.

o 남조선당국이 외교부예산 확대놀음을 통하여 우리를 자극하고 북남관계를 해칠 흉심, 천년숙적과도 거리낌 없이 입맞춤을 해댈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 사실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음.

o 《대북공조》구걸과 청탁놀음으로는 교착상태에 처한 북남관계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남조선의 대외적 처지를 절대로 개선할 수 없다. 특히 력사외곡과 경제침략에 열을 올리는 일본 것들과의 관계회복 따위를 추구하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 없는 역적행위, 민심의 저주와 버림을 받을 자멸행위임.

o 남조선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사대적 근성과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공조의 길로 나가는데 있다는 것은 자명한 리치임.

정부 대북정책 비난, “친미굴종 정책”

▌주요 내용(9.26, 우리민족끼리)

o 요즘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관계는 조미관계, 《북핵문제》해결에 종속되여야 한다는 미국의 강도적인 훈계에 대꾸질 한마디 못하고 있어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o 미국의 정가에서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열쇠는 남조선이 아니라 미국이 쥐고 있다, 북남관계는 조미관계를 지원해야 한다, 북남대화는 《비핵화협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돌자 남조선의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를 비롯한 당국자들은 줄줄이 나서서 《평화정착은 북미간 〈비핵화〉협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미국과 긴밀하게 협상하겠다.》, 《당면하여 북미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는 추태를 부렸음.

o 이것이 북남관계를 민족의 의사와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려는 동족에 대한 로골적인 배신행위로 되며 북남관계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려 과거에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음.

o 리○○, 박○○역도집권시기 왜 북남관계가 파국에로 치달았는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여 날뛰였기 때문임.

o 지금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이전 보수《정권》의 친미굴종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님.

o 지난 2018년 10월 30일 미 국무성 부대변인이 《〈한〉미간에 〈비핵화〉와 남북협력사업에서 유엔〈제재결의〉준수와 긴밀한 조률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워킹그룹〉을 내오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힌 것처럼 지금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대하고 있음.

o 미국의 요구가 정책이 되고 외세의 입김에 따라 돛을 단다면 언제가도 북남관계를 민족의 의사와 지향에 맞게 전진시켜나갈 수 없음.

o 그것이 가져다줄 것은 북남관계의 장기적인 교착상태와 남조선의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뿐임.

o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민족의 리해관계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는 진리임.

국방예산 증액 관련 “군사적 망동” 거론 비난

▌주요 내용(9.27, 우리민족끼리)

o 평화의 막 뒤에서 군사적 대결을 몰아오려는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의 발광이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 있음. 얼마 전에 발표한 래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여 있는 《국방예산》의 규모와 내용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음.

o 남조선군부는 《독자적인 방위력강화》의 간판밑에 《국방예산》규모를 올해보다 7.4% 늘어난 사상 최대규모인 449억US$로 편성하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F-35A》스텔스전투기와 정찰위성을 비롯한 첨단장비의 도입과 새로운 무기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주국방》의 미명하에 국방연구개발예산도 20.7%나 증액하였음.

o 이것은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합의에 대한 로골적인 위반이며 조선반도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대결상태에로 되돌리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임.

o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육성》과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대비한 핵심전력보강, 〈국방개혁〉의 지속추진을 위한 예산안편성》이라는 것이 북침전쟁준비책동의 한 고리라는 것은 올해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이 광란적으로 벌린 전쟁연습소동과 무력증강책동이 립증해주고 있음.

o 미국과 야합하여 벌린 《동맹 19-1》을 비롯한 수많은 군사연습들과 《F-35A》 스텔스전투기구입, 개인첨단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개발 등은 다 그 누구의 《위협》이라는 명분 밑에 벌려놓은 도발적인 전쟁연습이고 무력증강이였음.

o 다음해 《국방예산안》편성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보아도 그것이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소동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는 것은 불보듯 명백함.

o 북남관계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이 벌려놓은 《국방예산》증액놀음은 결코 스쳐 보낼 문제가 아님.

o 남조선당국과 군부 호전광들은 대세의 흐름과 겨레의 지향을 똑똑히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함.

o 우리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남조선군부가 미국과 야합한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을 위한 《국방예산안》증액놀음에 계속 매달릴수록 우리는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 나갈 것임.

o 앞으로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이 더욱 무분별하게 날뛴다면 저들이 필사적으로 끌어들이는 최신무장장비들은 파철더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여줄 것임.

대외동향

‘국가조정위’ 대변인 담화, 북 해킹 관련 대북제재위 보고서 비난

▌개 요

o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 담화, ‘북,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20억 US$ 해킹 탈취’ UN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비난 (9.1, 중통)

▌주요 내용

o 최근 미국 등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해킹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대량살륙무기 개발에 필요한 약 20억 US$의 자금을 절취하였다는 여론을 내돌리고 있음.

o 문제는 그들이 아무런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무작정 우리를 걸고드는 모략자료를 우리가 인정도 하지 않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 그루빠 중간보고서에까지 박아넣은 것임.

o 싸이버범죄를 비롯한 온갖 범죄의 왕초들이 이따위 새빨간 거짓말을 날조해낸 것은 거짓말도 백번 하면 사실로 믿게 된다는 히틀러파시스트 선전자들의 수법을 재현해보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임.

o 적대세력들의 이러한 모략날조행위는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대조선제재압박소동의 명분을 세워보려는 치졸한 놀음에 불과함.

o 우리는 국가의 존엄을 함부로 헐뜯으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결산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함.

리용호 외무상 -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 회담

▌개 요

o 리용호 외무상 -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 회담,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9.3, 중통)

▌주요 내용

o 리용호 외무상과 왕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사이의 회담이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음.

o 쌍방은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의도에 맞게 조·중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하였음. 또한 조선반도 정세를 비롯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o 회담에는 조선측에서 리길성 외무성 부상, 오룡철 대외경제성 부상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중국측에서 라조휘 외교부 부부장, 왕병남 상무부 부부장, 등파철 국가국제발전협조서 부서장을 비롯한 외교부장 일행, 리진군 주조 중국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음.

왕이 중국 외교부장,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 방문

▌개 요

o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일행, 안주시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 방문(9.3 중방, 9.4 중통)

▌주요 내용

o 왕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일행이 3일 평안남도 안주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았음.

o 리길성 외무성 부상과 관계부문 일군들, 리진군 주조 중국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동행하였음.

o 왕의 외교부장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중국인민지원군 철도부대 렬사기념비에 진정되였음.

o 참가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전선에 참전하여 싸운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렬사릉원을 돌아보았음.

미 공화당 상원의원의 '불안정한 독재자' 발언 비난

▌개 요

o 미 공화당 상원의원의 '불안정한 독재자' 발언 비난(9.5, 중통 논평)

o 제목: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위험한 정치적 도발>

▌주요 내용

o 최근 미 국회 상원 의원 '테드 크루즈'라는 자가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망발을 쭤쳐댔음. 이것은 크루즈의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 국회 보수세력들의 대조선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정치적 도발로 됨.

o 크루즈로 말하면 조국인 꾸바를 버리고 도주한 변절자의 후예로서 꾸바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이전 미 행정부의 계획을 《비극적인 오유》라고 하면서 앞장에서 반대하였으며 2016년 10월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반꾸바 봉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차이로 통과되였을 때에도 반꾸바 제재 정책은 언제나 고수되여야 할 미국의 정책이며 법이라고 고아댄 근본도 모르는 인간쓰레기임.

-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였을 때에는 이란 핵 합의가 미국의 리익을 극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다느니,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란에 즉시 군사적 타격을 가하겠다느니 하며 기염을 토하여 전쟁미치광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 2016년 3월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테로공격사건이 발생하자 이슬람교도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수리아 피난민 수용계획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미국 내 이슬람교도 거주지역들에 대한 순찰과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미국 정계로부터 극단한 인종주의자라는 비난도 받은 자임.

o 이런 자이기에 미국 내는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모두의 미움을 받는 극우익분자》, 《거짓말쟁이》, 《사람의 탈을 쓴 악마》로 악명을 떨치고 있음.

o 이 자의 행태를 보면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이 골수에 찬 나치스의 잔여분자가 아니면 리성을 잃고 헤덤비는 히스테리, 정신병자가 분명함.

o 우리는 그가 누구든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계산할 것임.

미·일 해상연합훈련 및 합동군사연습 비난

▌개 요

o 미·일 해상연합훈련 및 합동군사연습 비난(9.8, 중앙통신·민주조선)

o 제목: <조선반도정세를 위험국면에로 몰아가는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군사적 망동을 단죄>

▌주요 내용

o 지난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은 일본반동들과 함께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규모 해상련합훈련을 강행한데 이어 8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또다시 거의 한 달 동안 조선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있음.

o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위험 국면에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망동임.

o 6.12 조미공동성명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추동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온 세상에 엄숙히 천명한 력사적 선언임. 세계와 인류 앞에 조·미 두 나라가 다진 이 공약은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리행해야 함.

o 우리는 이미 중대하고도 의미 있는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여 6.12 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려는 의지를 과시하였음. 미국도 진정으로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조미관계 개선을 지향한다면 6.12 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맞게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일체 군사행동들을 당장 중지해야 마땅함.

o 하지만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이미 그 중지를 공약한 군사연습들을 재개하는 등 군사적 적대행위를 로골화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시키고 있음.

o 섬나라 족속들은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들을 군국주의 부활과 조선반도 재침야망 실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전쟁 불장난 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음. 이것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

o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마련이듯이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무모한 군사적 망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는가는 불을 보듯 명백함.

각국 정상,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권 수립 71주년' 축전

▌개 요

o 중국·러시아·쿠바·싱가포르·시리아 정상,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권 수립(9.9절) 71주년' 축전(9.9, 중앙방송·노동신문)

▌주요 내용

o 김정은 위원장에게 습근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9일 축전을 보내여 왔음. 축전은 다음과 같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위원장 동지와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정부,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진심으로 되는 축원을 보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후 71년간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위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 왔음.

- 나는 위원장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조선의 사회주의 위업이 반드시 새로운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믿음.

- 위원장 동지는 지난 해 이래 4차례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나는 올해 6월 조선에 대한 국가방문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음. 우리들 사이에 이룩된 광범한 공동인식이 적극적으로 관철되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함.

- 위원장 동지와 함께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계승·발전시키고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력사적 시기에 더욱 발전되도록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음.

- 위원장 동지가 건강하고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되기를 축원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 안녕을 축원함.

o 김정은 위원장에게 로씨야련방 대통령 뿌찐이 9일 축전을 보내여 왔음. 축전은 다음과 같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1돐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냄.

- 로씨야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관계는 친선적이고 건설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우리들의 4월 울라지보스또크 상봉은 이것을 완전히 립증하였음.

- 쌍무적인 대화와 협력을 여러 방면에서 가일층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리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전반의 안전과 안정을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확신함.

- 당신이 건강하고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들에게 행복과 복리가 있기를 바람.

o 김정은 위원장에게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동지가 9일 축전을 보내여 왔음. 축전은 다음과 같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1돐을 맞으며 나는 당신과 조선정부 그리고 인민에게 꾸바인민과 정부의 이름으로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냄.

- 형제적 인사를 보냄.

o 김정은 위원장에게 싱가포르공화국 대통령 할리마 야꼬브가 9일 축전을 보내여 왔음. 축전은 다음과 같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기념하는 계기에 즈음하여 싱가포르인민을 대표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귀국과 귀국인민에게 평화와 진보, 행복이 계속 있기를 축원함.

o 김정은 위원장에게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가 7일 축전을 보내여 왔음. 축전은 다음과 같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1돐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면서 귀국에 언제나 안정과 평화, 보다 큰 발전과 진보가 있을 것을 축원함.

- 우리는 이 계기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광에로 령도한 수령들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령도자를 회고하게 되며 오늘 조선이 당신의 령도 밑에 자기의 행로를 굳건히 이어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함.

- 공동의 리해관계를 가진 수리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적대국가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모든 분야에 걸쳐 쌍무관계와 협력의 뉴대를 계속 강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임.

- 숭고한 경의를 표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함.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9월 하순 북미실무협상 용의”

▌개 요

o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9월 하순 북미실무협상 용의”(9.9,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나는 미국에서 대조선 협상을 주도하는 고위관계자들이 최근 조·미 실무협상 개최에 준비되여 있다고 거듭 공언한데 대하여 류의하였음.

o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며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는 립장을 밝혔음.

o 나는 그 사이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봄.

o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론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음.

o 나는 미국측이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음.

o 만일 미국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음.

일본 최고재판소 '조선학교 상소 기각' 비난

▌개 요

o 일본 최고재판소의 '고등학교 무상화 적용 제외 관련 조선학교의 상소 기각' 비난(9.9, 중앙통신·민주조선)

o 제목: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한 민족차별정책을 폭로단죄>

▌주요 내용

o 얼마 전 일본 최고재판소는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데 대한 오사까 조선학원의 상소를 기각하였음. 뿐만 아니라 다른 4곳에서 제기된 그와 같은 상소들도 모두 기각하였음.

o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반인륜적 파쑈 폭거이며 조선민족과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임.

o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리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 자녀들에게는 일본인 학생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조선사람이라는 단 한 가지 리유로 재일동포 자녀들에게 부당한 차별행위를 가하며 배움의 권리를 박탈하려 드는 것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깡패 행위가 아닐 수 없음.

o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한사코 방해해 나섬으로써 자라나는 재일조선인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민족의 넋을 말살해버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동화, 귀화시킴으로써 총련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

o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도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재일조선인들을 박해하고 재일동포 자녀들에 대한 차별행위에 미쳐 날뛰는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임.

o 우리는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 있는 일본반동들의 망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관련 미국 반응 비난

▌개 요

o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관련 미국 반응 비난(9.10, 노동신문)

o 제목: <항거를 낳는 파렴치한 간섭행위>

▌주요 내용

o 남조선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발표가 있은 후 일본의 아베정권은 《유감》이니, 《신뢰훼손》이니 하고 반발하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놀아대고 있음. 이러한 망동이 정치난쟁이들의 간특하고 철면피한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별로 놀랄 것은 없음.

o 문제는 일본 못지않게 섬나라의 편에 서서 남조선에 로골적인 압력을 가하는 외부세력이 있는 것임. 다름아닌 미국임.

o 요즘 미 국무성과 미 국방성의 우두머리들과 미 국회의 고위 정객들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대해 《우려》니, 《실망》이니 하는 강경 발언들을 련이어 쏟아내고 있음.

- 협정파기가 《심각한 오해가 반영된 일방적인 결정》이라느니, 일본과의 관계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리익과 동맹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느니 하고 법석 고아대며 남조선 당국에 《결정취소》를 강박하고 있음.

- 나중에는 《문제가 복잡》해지고 《위험이 증가》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저들의 요구를 들이먹이려 하고 있음.

o 남조선-일본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된 것은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재침 야망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반동들에 대한 남조선 민심의 깊은 경계심과 치솟는 분노의 반영으로서 당연한 것임.

o 미국은 거기에 코를 들이밀고 간섭할 아무런 명분도 없음. 더우기 미국은 남조선-일본 관계 문제를 놓고 일본의 편을 로골적으로 들고 있음. 《분쟁중지》를 설교하며 《중재자》처럼 행세하군 하였음.

o 미국은 남조선-일본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되자 남조선에 대고 눈알을 부라리며 《결정취소》를 강박하는 등 전례 없는 압박공세에 나서고 있음. 저들의 리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미국의 강도적 본색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음.

o 미국이 남조선을 반미 무풍지대로 여기면서 저들의 강도적 요구가 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임.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남조선에 불러올 것은 민심의 거세찬 반미폭풍일 뿐임.

리수용 당 부위원장 -라오스 부통령 회담 진행

▌개 요

o 리수용 당 부위원장 - 라오스 부통령 회담 진행(9.10,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리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판캄 위파완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부주석 사이의 회담이 10일 평양에서 진행되였음.

o 쌍방은 선대 수령들에 의하여 맺어지고 강화·발전되여 온 동지적이며 전략적인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o 조선측에서 류명선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일군들이, 라오스측에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음.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북미대화 관련 입장불변 강조

▌개 요

o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입장불변 강조 "제도 안전·발전 장애물 제거될 때 비핵화 논의 가능"(9.16,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o 나는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실무협상이 조·미 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함.

o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미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 수도 있음.

o 다시 말하여 조·미 대화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음.

o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실무협상은 조·미 대화의 금후기로를 정하는 계기로 됨.

o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며 불변함.

o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론의도 할 수 있을 것임.

o 조·미 협상이 기회의 창이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됨.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문답, “일본 선박 퇴거조치는 정당한 주권행사” 주장

▌개 요

o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문답, 일본 선박의 배타적 경제수역 불법 침입(8.23~24.) 퇴거조치는 정당한 주권행사 주장(9.17,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공화국의 전속 경제수역에 대한 일본의 침범사건과 관련하여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 지난 8월 23일과 24일 우리의 전속 경제수역에 불법침입하였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선박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쫓겨났음.
- 우리가 자기 수역에서 일본측 선박들을 몰아낸 것은 정정당당한 주권행사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리 수역에 대한 침범과 우리 어선들의 어로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일본측에 엄중히 주의를 환기시켰음.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

▌개 요

o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 언급 관련,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기대' 표명(9.20,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하였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음.

o 조·미 실무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로서 나는 시대적으로 낡아빠진 틀에 매여달려 모든 것을 대하던 거치장스러운 말썽군이 미 행정부 내에서 사라진 것만큼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함.

o 우유부단하고 사고가 경직되였던 전 미 행정부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조선반도에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되였을 것이며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임.

o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여 있는지 그 내용을 나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조·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음.

o 발언 내용의 깊이를 떠나서 낡은 방법으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대안으로 해보려는 정치적 결단은 이전 미국 집권자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 감각과 기질의 발현이라고 생각함.

o 나는 미국측이 이제 진행되게 될 조·미 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락관하고 싶음.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 축전에 대한 답전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 정권 수립(9.9절) 축전에 대한 답전, '북-중 친선 계승 발전' 강조(9.20, 중앙방송·중앙통신)

▌주요 내용

o 나는 존경하는 총서기 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보내준데 대하여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전체 조선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함.

o 총서기 동지와 중국당과 정부,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성원은 사회주의강국 건설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는 우리 당과 정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되고 있음.

o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이어진 우리들의 상봉은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며 전략적 선택인 조·중 친선을 변함없이 공고·발전시켜 나가려는 나와 총서기 동지의 확고한 의지를 세계 앞에 힘 있게 과시하였음.

o 나는 총서기 동지와 약속한대로 사회주의 한 길에서 조·중 친선을 계승하고 빛내이며 보다 휘황찬란한 래일을 안아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

o 중국 인민이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새 중국의 일흔 번째 탄생일을 뜻 깊게 맞이하며 중화 민족의 부흥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진심으로 바람.

o 존경하는 총서기 동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충심으로 축원함.

김정은 위원장, 쿠바 당 제1비서와 내각 수상 축전에 답전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 쿠바 당 제1비서와 내각 수상의 '북 정권 수립(9.9절)' 71주년 축전에 답전(9.21,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

o 나는 제1비서 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함.

o 나는 장장 60년의 력사를 아로새겨온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승되고 더욱 강화·발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함.

o 나는 제1비서 동지의 령도 밑에 꾸바 공산당과 형제적 꾸바 인민이 사회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함.

o 제1비서 동지의 건강을 충심으로 축원함.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 베네수엘라 제헌민족회의 의장 간 회담 진행

▌개 요

o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 베네수엘라 제헌민족회의 의장 간 회담 진행(9.24,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

o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디오스다도 까벨료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제헌민족회의 의장 겸 통일사회주의당 제1부위원장 사이의 회담이 24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되였음.

o 회담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였음.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중국 창건 70주년’ 연회 마련

▌개 요

o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옥류관에서 ‘중국 창건 70주년’ 연회 마련 (9.25,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가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25일 옥류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음.

o 연회에는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 중국 류학생들, 조선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손님들이 초대되였음.

o 태형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창근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길성 외무성 부상, 박춘식 문화성 부상, 조중친선협회 위원장인 박경일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음.

o 박경일 조중친선협회 위원장은 연회에서 한 연설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중국공산당의 령도 밑에 중국인민이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 속에서 쟁취한 인민혁명승리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중국인민이 걸어온 70년은 중화대지우에 부강번영하는 국가를 일떠세운 창조와 변혁의 나날이였다고 말하였음.

o 리진군 특명전권대사는 연설에서 지난 70년간 중화인민공화국이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난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주북 중국 특명전권 대사, '중국 창건 70주년' 연회 마련

▌개 요

o 리진군 주북 중국 특명전권 대사 '중국 창건 70주년' 연회 마련, 박봉주 당 부위원장 참석(9.26,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리진군 주조 중국 특명전권 대사가 26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음.

o 박봉주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부문 일군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이 초대되였으며 중국대사관 성원들, 조선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손님들이 참가하였음.

o 리진군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음.

- 연설자는 지난 70년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공산당의 령도 밑에 비약과 발전을 이룩하며 중화민족의 력사에 훌륭한 서사시를 새겨온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중조친선의 력사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면서 습근평 총서기와 김정은 위원장이 5차례의 상봉으로 중·조 친선의 생활력과 중조관계의 불패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고 말하였음.

-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한다 해도 중조관계를 공고·발전시켜나가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며 조선인민에 대한 중국인민의 친선의 감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였음.

o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연설하였음.

- 연설자는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열렬히 축하하고 중국인민이 습근평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장군이 중국의 로세대령도자들과 친히 맺고 가꾸어 온 친선의 전통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습근평 주석 사이의 동지적 신뢰와 남다른 친분관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승화·발전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며 전략적 선택인 조·중 친선을 변함없이 공고·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라고 말하였음.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개 요

o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 기대, 미국의 차후 동향을 주시할 것"(9.27,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나는 최근 미국에서 조·미 수뇌회담 문제가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

o 지금까지 진행된 조·미 수뇌 상봉들과 회담들은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기 위한 조·미 수뇌들의 정치적 의지를 밝힌 력사적 계기로 되였음.

o 그러나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리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앞으로의 수뇌회담 전망은 밝지 못함.

o 조·미 사이의 신뢰 구축과 조·미 공동성명 리행을 위하여 우리는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여 우리 나라에 억류되였던 미국인들을 돌려보내고 미군 유골을 송환하는 등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왔음.

o 그러나 미국은 공동성명 리행을 위하여 전혀 해놓은 것이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대조선 제재·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조미관계를 퇴보시켰음.

o 아직도 위싱톤 정가에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해야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선 핵포기》 주장이 살아있고 제재가 우리를 대화에 끌어낸 것으로 착각하는 견해가 란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나는 또 한 차례의 조·미 수뇌회담이 열린다고 하여 과연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겠는가 하는 회의심을 털어버릴 수 없음.

o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 접근방식을 지켜보는 과정에 그가 전임자들과는 다른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로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에 기대를 걸고 싶음.

o 나와 우리 외무성은 미국의 차후 동향을 주시할 것임.

북 대표단 단장, 23일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

개 요

o 북 대표단 단장, 23일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9.27, 노동신문)

주요 내용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이 23일 유엔에서 진행된 기후행동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였음.

o 단장은 지속적인 자원 람용과 환경 파괴는 오늘날 인류의 생존에 커다란 위험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계속되는 기온 상승으로 2015년부터 가장 더운 5년이 기록되고 있는 사실은 기후변화문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였음.

o 유엔성원국들은 기후변화문제를 도덕·륜리적 측면에서 대하여야 한다면서 일부 나라들이 자기의 경제적 리익만을 앞세우며 기후변화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o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입는 피해액은 예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그 피해자들은 바로 발전도상나라들이라고 하면서 발전된 나라들은 기후변화문제를 산생시킨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해결에서 자기의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o 올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2019년-2030년 국가환경보호전략과 국가재해 위험감소전략을 완성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의 령도 밑에 산림복구전투를 힘 있게 벌려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공화국정부는 2030년까지 자체의 노력으로 해마다 이산화탄소방출량을 16.4% 축감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에 의한 국제적 협조가 적극 추진되는데 따라 36%의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축감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o 단장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문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합세해 나갈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음.

북 대표단 단장, '의료봉사 관한 UN 고위급회의' 연설

▌개 요

o 북 대표단 단장, 23일 '전반적 의료봉사에 관한 UN총회 고위급회의' 연설(9.28, 노동신문)

▌주요 내용

o 조선대표단 단장이 23일 전반적 의료봉사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에서 연설하였음.

- 보건사업이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구제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초보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며 유엔 지속개발목표에서도 핵심사항으로 됨.
- 하지만 세계인구의 근 절반이 아직도 현대의학과학의 혜택은커녕 초보적인 의료봉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주되는 원인은 성원국들의 정치적 의지와 실천적 노력이 결여된 것과 관련됨.
-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보건체계는 성별과 나이, 직업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의료봉사를 보장하여주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임.
- 우리는 보건사업을 발전시켜 가까운 앞날에 인구평균수명과 전염병 예방률을 비롯한 보건지표들을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울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음.
- 이미 설립된 든든한 보건하부구조가 있고 자력자강의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온갖 도전들을 물리치고 유엔 지속개발보건목표들을 빠른 기한 내에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에 넘쳐있음.
- 전반적 의료봉사를 실현하는데서 경계해야 할 문제는 보건이 인간의 생명 구제, 권리와 존엄보장이라는 숭고한 사명에서 벗어나 리윤 추구를 위한 하나의 기업으로 전락되는 것임.
- 공화국정부가 인민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것을 변함없는 국책으로 삼고 사회주의보건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유엔 지속개발보건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기여할 것임.

UN군사령부 역할 확대 관련 미국 비난

▌개 요

o UN군사령부 역할 확대 관련 미국 비난(9.29, 노동신문)

o 제목: <군사적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한 술책>

▌주요 내용

o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반환한 이후에도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작전 지휘를 계속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o 현실은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o 미국은 남조선당국과 협상을 벌려놓고 전시 작전 통제권을 넘겨줄 것처럼 놀아댔음. 그 일환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 이후 남조선군이 사령관직을, 미군이 부사령관직을 맡는 《미래련합군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해왔음.

o 그러던 미국이 지금에 와서는 미군이 남의 지휘를 받게 되는 지휘 구조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서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남조선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계속 행사하겠다고 우겨대고 있음.

o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영원히 틀어쥐고 북남대결과 북침전쟁의 돌격대, 하수인으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흉심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음.

o 남조선을 《동맹》의 쇠사슬로 계속 얽어매놓고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영원히 거머쥐려는 미국의 본심이 다시 한 번 확인되였을 뿐임.

o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할 대신 오히려 그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외세의 군사적 지배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우롱이며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망동임.

o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해 파렴치한 수법에 매달릴수록 그에 대한 민심의 항거는 더욱 거세여질 것임.

북 대표단 단장, ‘UN총회 비동맹운동 외무장관 회의’ 연설

▌개 요

o 북 대표단 단장, 26일 ‘UN총회 제74차 회의 비동맹운동 외무장관 회의’ 연설(9.29,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조선대표단 단장이 26일 유엔총회 제74차 회의기간 진행된 쁠럭 불가담 운동 외무상회의에서 연설하였음.

- 동서랭전의 종식과 더불어 일방주의가 막을 올린 때로부터 힘의 정치가 국제무대에서 갈수록 판을 치고 쁠럭 불가담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위협, 침략전쟁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음.

- 특히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대량살륙무기보유설》이라는 기만극이 연출되고 그에 따라 감행된 이라크에 대한 무력침공은 유엔 력사에 치욕의 한 페지를 남겼음.

- 일방주의를 막지 않고서는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관계와 국제질서 수립을 실현할 수 없음.

- 우리 대표단은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들 사이의 친선관계와 협조 도모를 위하여 자주권 및 정치적 독립의 원칙을 옹호하자》라는 본회의 주제를 쁠럭 불가담 나라들이 실지 행동에 구현함으로써 현 국제정세 하에서 운동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함.

- 조선대표단이 제18차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회의를 계기로 반제자주, 반전평화 애호력량으로서의 운동의 성격에 맞게 그리고 운동의 통일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운동 마크와 기발을 제정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제의하였음.

UN총회 제74차 회의기간 G77 외무장관회의, 27일 진행

개 요

o UN총회 제74차 회의기간 G77 외무장관회의, 27일 진행(9.30, 중앙방송)

주요 내용

o 북한을 비롯한 120여개의 성원국 대표단이 참가, 40여개 나라 대표들이 연설함.

o 상회의에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를 배격하는 77개 집단 성원국들의 일치하고도 원칙적인 입장이 반영된 선언이 채택됨.

o 대표단 단장은 2030년까지 지속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도 다름 아닌 남남협조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이 앞으로도 정의와 평등·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 관계를 수립하며 집단적 자력갱생에 기초한 남남협조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함.

주요인물 동정

김정은(당 위원장)

9.2. 베트남 독립(9.2.) 74주년 계기 同國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응웬 푸 쫑)에게 축전(9.2, 노동·중통·중방)

(미상) 삼지연군 꾸리기를 적극 지원한 일군·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9.4, 노동/ 9.5, 중방)

(미상) 김성녀(성간군 도로보수관리대 구봉령가족소대장), 하순만(은률광산 증산광구 노동자)에게 80세 생일상 전달(9.5, 중통/ 9.6, 노동)

9.6. 제13호 태풍(링링)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긴급 소집 및 지도(9.6, 중통·중방·평방/ 9.7, 노동)

9.6.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9.7, 노동·중통·중방)

9.10.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재지도 및 국방과학연구 부문 지도간부·과학자·기술자들에게 감사 전달(9.11, 노동·중통·중방)

(미상) 전용녀(황해남도 해주시 결성동) 할머니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9.10, 중통/ 9.11, 중방/ 9.12, 노동)

(미상) 리복실(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 할머니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9.11, 중통/ 9.13, 노동)

9.11.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54회 생일 축전(9.11, 중통/ 9.12, 노동)

(미상)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9.19, 노동·중방)

(미상) 최승조(황해남도 옹진군 국봉리) 할머니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9.19, 중통/ 9.20, 노동·중방)

9.11.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답전(9.20, 노동·중통·중방)

(미상) 김일성고급당학교 부강좌장 김윤식 등 모범적인 강연강사들에게 감사 전달(9.21, 노동·중통·중방)

9.19.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제1서기에게 각각 답전(9.21, 중통·중방/ 9.22, 노동)

(미상) 송만철(연안군 소정협동농장원) 등 모범적인 학습강사들에게 감사 전달(9.24, 노동·중방)

김경호(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9.18. 제8차 국제무도경기대회('19.11월 이탈리아) 봉화(성화) 채화의식 참석(청춘거리 체육촌, 무도봉화대)(9.18, 중통·중방/ 9.19, 노동)

9.19. 내각 주최,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선수단 축하 연회 참석(옥류관)(9.19, 중통·중방/ 9.20, 노동)

김계관(외무성 고문)

9.27. 외무성 고문 명의 담화 발표(9.27, 중통)

김덕훈(내각 부총리)

9.8. 당·정부의 간부들 태풍(제13호 태풍 '링링')피해복구전투 현지 지휘(9.8, 중방·조중TV/ 9.9, 노동)

9.13. '추석날'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애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화환 진정 행사 참가(9.14, 노동)

김명길(외무성 순회대사)

9.20. 외무성 순회대사 명의 담화 발표(9.20, 중통)

김봉석(평양시 당 위원회 부위원장)

9.1.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인민문화궁전)(9.3, 노동·중방)

9.11. 평양기초식품공장, 2중 3대혁명붉은기 수여식 참석(9.12, 중방)

김선경(외무성 부상)

9.2. 주북 베트남대사관 주최 베트남 독립(9.2.) 74주년 기념 연회 참석(9.2, 중통·중방/ 9.3, 노동)

김성일(함경남도 당 위원회 위원장)

9.1. 함흥수리동력대학 창립 60주년 기념 보고회 참석(함흥대극장)(9.1, 중방/ 9.2, 노동)

김성일(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9.1.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대표단 단장으로 러시아(국제청년연단 참가), 라오스 방문 후 귀국(9.1, 중통·중방)

김승두(교육위원회 위원장)

8.31.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차 평양에 도착한 참가자들 영접(9.1, 중방/ 9.2, 노동)

9.3.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석(평양체육관)(9.4, 노동·중통·중방)

9.6. 김정은 위원장,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 시 동행(9.7, 노동·중통·중방)

9.6. 전국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 교육지원전시회(8.30.~9.6.) 폐막식 참석 및 폐막사(9.6, 중통·중방/ 9.7, 노동)

9.19. 전국 대학생 정보과학기술성과 전시회 개막식 참석(과학기술전당)(9.19, 중통/ 9.20, 노동)

김여정(당 제1부부장)

9.11.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재지도 시 수행(9.11, 노동·중통·중방)

김영재(대외경제상)

9.23. 제15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9.23.~27.) 개막식 참석(평양체육관)(9.23, 중통·중방/ 9.24, 노동)

김익성(외교단사업총국 총국장)

9.2. 주북 베트남대사관 주최 베트남 독립(9.2.) 74주년 기념 연회 참석(9.2, 중통·중방/ 9.3, 노동)

9.2. 외교단사업총국 친선대표단 단장으로 중국 방문 후 귀국(9.2, 중통·중방/ 9.3, 노동)

김재룡(내각 총리)

(미상) 서해갑문-신천-강령, 옹진물길 1단양수장, 은률군 읍협동농장, 서곡협동농장 등 황남 여러 단위 및 황북 황주군 순천협동농장 현지 요해(9.2, 중통/ 9.3, 노동)

9.2.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 숙소 방문 및 격려(9.2, 중통/ 9.3, 노동)

9.2. 베트남 독립(9.2.) 74주년 계기 同國 총리(응웬 쑤언 푹)에게 축전(9.2, 중통)

9.3.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석 및 대회보고(평양체육관)(9.4, 노동·중통·중방)

9.6. 김정은 위원장,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 시 동행(9.7, 노동·중통·중방)

(미상)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평양베어링공장 현지 요해(9.13, 중통·중방/ 9.14, 노동)

(미상)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양책베어링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용천군 신암협동농장, 봉화화학공장, 12월5일청년광산, 신의주마이신공장 등 평안북도 안의 여러 단위 현지 요해(9.24, 중통·중방/ 9.26, 노동)

(미상) 평양자동화기구공장, 룡성베어링공장, 평양고무공장, 장산광산, 평양연마석공장 등 인민경제 여러 단위 현지 요해(9.29, 중통·중방/ 9.30, 노동)

김정수(체육성 제1부상)

9.23.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여자 53kg급)에서 금메달 획득 후 귀국하는 박영미 선수 맞이(9.23, 중통/ 9.24, 노동)

김정식(당 부부장)

9.10.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재지도 시 수행(9.11, 노동·중통·중방)

김평해(당 부위원장)

9.8. 당·정부의 간부들 태풍(제13호 태풍 '링링')피해복구전투 현지 지휘(9.8, 중방·조중TV/ 9.9, 노동)

김형룡(인민무력성 부상)

9.23. 리진쥔 주북 중국대사 주최, 自國 창건 70주년 계기 연회 참석(9.27, 노동)

노광철(인민무력상)

9.5. 정권수립일(9.9.) 기념 주북 무관단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접수(9.5, 중통/ 9.6, 노동)

9.13. '추석날'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애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화환 진정 행사 참가(9.13, 중통·중방/ 9.14, 노동)

9.22. '김정숙 사망('49.9.22.) 70주기' 중앙추모대회 참석(인민문화궁전)(9.22, 중통·중방/ 9.23, 노동)

9.22. '김정숙 사망('49.9.22.) 70주기'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 화환 진정(9.22, 중통·중방/ 9.23, 노동)

로두철(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9.13. '추석날'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애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화환 진정 행사 참가(9.13, 중통·중방/ 9.14, 노동)

류명선(당 부부장)

9.10. 최룡해 상임위원장, 브라질 민주노동당 대표단(단장: '파울루 세르지우 바르보사' 연방 하원 민주노동당그룹 위원장)과 담화 시 배석(9.11, 노동)

9.10.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단장: '판캄 위파완' 부주석) 평양 도착 시 영접(9.10, 중통/ 9.11, 노동)

9.10. 리수용 당 부위원장, 판캄 위파완 라오스 부주석과 회담 시 배석(9.10, 중통/ 9.11, 노동)

9.10. 당 중앙위원회 주최,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단장: '판캄 위파완' 부주석) 환영 연회 참석(9.10, 중통/ 9.11, 노동)

9.12. '김일성-카이손 폼비한(前 라오스 대통령) 첫 상봉 54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참석(대동강외교단회관)(9.12, 중통·중방/ 9.13, 노동)

9.17. 일조우호 야마나시현 대표단(단장: 가네마루 신고)과 담화(9.17, 중통)

리근석(평양시 당 위원회 부위원장)

9.1.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봉화예술극장)(9.3, 노동·중방)

리길성(외무성 부상)

9.2. 리용호 외무상과 왕이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간 회담 참석(만수대의사당)(9.3, 중통/ 9.4, 노동)

9.3. 왕이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일행 안주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 방문 시 동행(9.3, 중방/ 9.4, 노동·중통)

9.10. 당 중앙위원회 주최,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단장: '판캄 위파완' 부주석) 환영 연회 참석(9.10, 중통/ 9.11, 노동)

9.25. 대외문화연락위원회·조중친선협회 주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계기 연회 참석(옥류관)(9.25, 중통·중방/ 9.26, 노동)

9.26. 리진쥔 주북 중국대사 주최, 自國 창건 70주년 계기 연회 참석(9.27, 노동)

리룡남(내각 부총리)

9.2.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되는 '제5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평양 출발(9.2, 중통·중방/ 9.3, 노동)

9.2.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제5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도착(9.3, 중방/ 9.4, 노동)

9.5.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와 담화(블라디보스토크)(9.6, 중통·중방/ 9.7, 노동)

9.5.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북극·극동개발부 장관, 올렉 코줴먀코 연해주 주지사와 각각 담화(블라디보스토크)(9.6, 중통·중방/ 9.7, 노동)

9.6.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된 '제5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후 귀국(9.6, 중통·중방/ 9.7, 노동)

9.8. 당·정부의 간부들 태풍(제13호 태풍 '링링')피해복구전투 현지 지휘(9.8, 중방·조중TV/ 9.9, 노동)

9.23. 제15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9.23.~27.) 개막식 참석(평양체육관)(9.23, 중통·중방/ 9.24, 노동)

리명환(건설건재공업성 부상)

9.2. 국제첨단기술상품전람회(9.2.~6.) 개막식 참석 및 개막연설(9.2, 중통/ 9.3, 노동)

리병철(당 제1부부장)

9.10.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재지도 시 수행(9.11, 노동·중통·중방)

리수용(당 부위원장)

9.4. 왕이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담화(9.5, 노동·중통·중방)

9.6. 브라질 민주노동당 대표단(단장: '파울루 세르지우 바르보사' 연방 하원 민주노동당그룹 위원장)과 담화(9.6, 중통·중방/ 9.7, 노동)

9.6. 당 중앙위원회 주최 브라질 민주노동당 대표단(단장: '파울루 세르지우 바르보사' 연방 하원 민주노동당그룹 위원장) 환영 연회 참석(9.6, 중통·중방/ 9.7, 노동)

9.8. 방글라데시 노동당 대표단(단장: '라쉐드 칸 메논'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담화(9.8, 중통·중방/ 9.9, 노동)

9.8. 방글라데시 노동당 대표단(단장: '라쉐드 칸 메논' 중앙위원회 위원장) 환영 연회 주최(9.8, 중통·중방/ 9.9, 노동)

9.10. 판캄 위파완 라오스 부주석과 회담(9.10, 중통/ 9.11, 노동)

9.10. 당 중앙위원회 주최,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단장: '판캄 위파완' 부주석) 환영 연회 참석(9.10, 중통/ 9.11, 노동)

9.11. 스페인 인민공산당 대표단(단장: '빅토르 마누엘 루카스' 중앙위원회 국제비서)과 담화 및 김정은 위원장 선물 접수(9.11, 중통·중방/ 9.12, 노동)

9.11. 불가리아-조선 친선의원단 대표단(단장: '스토얀 미르체브' 위원장)과 담화(9.11, 중통·중방/ 9.12, 노동)

9.12.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단장: '판캄 위파완' 부주석) 금수산궁전 참배 시 동행(9.12, 중통·중방/ 9.13, 노동)

9.22.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대표단(단장: '페두르 데 모라이스 네투'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담화(9.22, 중통·평방/ 9.23, 노동)

9.22. 당 중앙위원회 주최,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대표단(단장: '페두르 데 모라이스 네투'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환영 연회 참석(9.22, 중통/ 9.23, 노동)

9.25. 베네수엘라 당 및 정부 고위대표단(단장: 디오스다도 카베요 제헌의회 의장 겸 통일사회주의당 제1부위원장)과 담화(만수대의사당)(9.25, 중방/ 9.26, 노동·중통)

9.29. 라오스 라오인민혁명당 사이냐불리주 대표단(단장: 펑싸완 싯타윙 주 당비서 겸 주지사)과 담화 및 김정은 위원장 선물 접수(9.29, 중통·중방/ 9.30, 노동)

리용선(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9.12. 국제무도경기위원회(IMGC)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 도착(9.12, 중통·중방/ 9.13, 노동)

9.17. 국제무도경기위원회(IMGC)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학기술전당)(9.17, 중통·중방/ 9.18, 노동)

9.18. 제8차 국제무도경기대회('19.11월 이탈리아) 봉화(성화) 채화의식 참석(청춘거리 체육촌, 무도봉화대)(9.18, 중통·중방/ 9.19, 노동)

9.18. 국제무도경기위원회(IMGC) 창립 20주년 기념 무도 시범출연 관람(태권도전당)(9.18, 중통·중방/ 9.19, 노동)

9.19. 국제무도경기위원회(IMGC)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의 친선연환모임 참석(9.19, 중통·중방/ 9.20, 노동)

리용호(외무상)

8.31. 말레이시아 독립(8.31.) 62주년 계기 同國 외무장관(사이푸딘 압둘라)에게 축전(8.31, 중통·중방)

9.2. 베트남 독립(9.2.) 74주년 계기 同國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팜 빈 민)에게 축전(9.2, 중통)

9.2. 왕이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환영 연회 참석(만수대의사당)(9.3, 노동·중통·중방)

9.2. 왕이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만수대의사당)(9.3, 중통/ 9.4, 노동)

9.5. 정권수립일(9.9.) 기념 주북 외교단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접수(9.5, 중통/ 9.6, 노동)

9.12. 베냉 외교장관(오렐리앵 아그베농시)에게 재임 축전(9.13, 중통·중방)

리일환(당 부장)

9.11. 전국 여맹예술소조 종합공연 '일편단심 태양을 따르는 충정의 꽃으로 피어나리라' 관람(여성회관)(9.11, 중통·중방/ 9.12, 노동)

리종혁(조국통일연구원 원장/ 조선-불가리아 친선의원단 위원장)

9.10. 스토얀 미르체브 불가리아-조선 친선의원단 위원장과 회담(9.10, 중통·중방/ 9.11, 노동)

리창근(당 부부장)

9.25. 대외문화연락위원회·조중친선협회 주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계기 연회 참석(옥류관)(9.25, 중통·중방/ 9.26, 노동)

9.25. 리진쥔 주북 중국대사 주최, 自國 창건 70주년 계기 연회 참석(9.27, 노동)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9.2. 국제첨단기술상품전람회(9.2.~6.) 개막식 참석(9.2, 중통/ 9.3, 노동)

리히용(함경북도 당 위원회 위원장)

9.1. 청진광산금속대학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 및 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청진광산금속대학)(9.3, 노동·중방)

9.26. 명천메기종어장 준공식 참석(9.26, 중방)

박경일(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9.2. 주북 베트남대사관 주최 베트남 독립(9.2.) 74주년 기념 연회 참석(9.2, 중통·중방/ 9.3, 노동)

9.24. 주북 파키스탄 대사관 주최 연회(정권수립 71주년 계기) 참석(대동강외교단 회관)(9.24, 중통/ 9.25, 노동)

9.25. 대외문화연락위원회·조중친선협회 주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계기 연회 참석 및 연설(옥류관)(9.25, 중통·중방/ 9.26, 노동)

9.26. 리진쥔 주북 중국대사 주최, 自國 창건 70주년 계기 연회 참석(9.27, 노동)

박광호(당 부위원장)

9.1. 평양기계종합대학 창립 60주년 기념 보고회 참석 및 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청년중앙회관)(9.1, 중방/ 9.2, 노동)

9.8. 당·정부의 간부들 태풍(제13호 태풍 '링링')피해복구전투 현지 지휘(9.8, 중방·조중TV/ 9.9, 노동)

9.13. '추석날'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애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화환 진정 행사 참가(9.13, 중통·중방/ 9.14, 노동)

9.22. '김정숙 사망('49.9.22.) 70주기' 중앙추모대회 참석 및 추모사(인민문화궁전)(9.22, 중통·중방/ 9.23, 노동)

9.22. '김정숙 사망('49.9.22.) 70주기'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 화환 진정(9.22, 중통·중방/ 9.23, 노동)

9.26. 기동예술선동대 결성('79.9.28.) 4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 및 기념보고(인민문화궁전)(9.27, 노동·중방)

9.27. 만수대예술단 조직('69.9.27.) 5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동평양대극장)(9.27, 중방/ 9.28, 노동)

박명국(외무성 부상)

9.5. 주북 브라질 임시대리대사(루이스 펠리페 실베리우) 주최 브라질 독립(9.7.) 197주년 기념 연회 참석(9.5, 중통/ 9.6, 노동)

박봉주(당 부위원장)

9.12.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단장: '판캄 위파완' 부주석)과 담화(9.12, 중통·중방/ 9.13, 노동)

(미상) 옹진군, 강령군, 연안군 등 황해남도 안의 여러 협동농장들 현지 요해, 태풍 13호(링링) 피해정형 요해(9.14, 중방/ 9.15, 노동·중통)

(미상) 낙랑구역 남사협동농장, 사동구역 송신남새전문협동농장 등 평양시 안의 협동농장들 현지 요해(9.18, 중통·중방/ 9.19, 노동)

(미상)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평양곡산공장, 선흥식료공장, 경흥은하수식료공장, 만경대경흥식료공장 등 평양시 안의 식료공업부문 현지 요해(9.20, 중통·중방/ 9.21, 노동)

9.23. 영광군·장진군 태풍피해 현황, 흥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함흥모방직공장, 함흥메기공장 등 함경남도 여러 단위 현지 요해(9.23, 중통·중방/ 9.24, 노동)

9.26. 리진쥔 주북 중국대사 주최, 自國 창건 70주년 계기 연회 참석 및 연설(주북 중국대사관)(9.26, 중통/ 9.27, 노동)

(미상) 평성관개기계공장, 평성합성가죽공장, 순천린비료공장건설장, 탄소하나화학공업대상 건설장 등 평안남도 안의 여러 단위 현지 요해(9.28, 중통·중방/ 9.29, 노동)

박수철(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9.12. 마르틴 뢰체르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등 일행 방문 시 담화(9.12, 중통·중방/ 9.13, 노동)

9.21. '김정숙 사망('49.9.22.) 70주기'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 꽃다발 진정(9.21, 중통·중방/ 9.22, 노동)

박정남(강원도 당 위원회 위원장)

9.25. 원산온실농장 착공식 참석(9.26, 노동·중방)

박정천(총참모장)

9.6. 제13호 태풍(링링)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소집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총참모장으로 새로 임명(9.6, 중통·중방·평방/ 9.7, 노동)

9.10.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재지도 시 수행(9.11, 노동·중통·중방)

박종호(강원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9.25. 원산온실농장 착공식 참석 및 착공사(9.26, 노동·중방)

박창호(황해북도 당 위원회 위원장)

9.29. 왕당2호저수지 준공식 참석 및 준공사(9.29, 중방)

박철민(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9.19. 전국 대학생 정보과학기술성과 전시회 개막식 참석 및 개막사(과학기술전당)(9.19, 중통/ 9.20, 노동)

9.25. 최룡해 상임위원장, 베네수엘라 당 및 정부 고위대표단(단장: 디오스다도 카베요 제헌의회 의장 겸 통일사회주의당 제1부위원장)과 담화 시 배석(만수대의사당)(9.25, 중방/ 9.26, 노동·중통)

박춘식(문화성 부상)

9.25. 대외문화연락위원회·조중친선협회 주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계기 연회 참석(옥류관)(9.25, 중통·중방/ 9.26, 노동)

박태덕(당 부위원장)

9.8. 당·정부의 간부들 태풍(제13호 태풍 '링링')피해복구전투 현지 지휘(9.8, 중방·조중TV/ 9.9, 노동)

박태성(최고인민회의 의장/ 당 부위원장)

8.31.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차 평양에 도착한 참가자들 영접(9.1, 중방/ 9.2, 노동)

9.2.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 숙소 방문 및 격려(9.2, 중통/ 9.3, 노동)

9.2.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석 및 참가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 저작 전달(평양체육관)(9.4, 노동·중통·중방)

9.8. 당·정부의 간부들 태풍(제13호 태풍 '링링')피해복구전투 현지 지휘(9.8, 중방·조중TV/ 9.9, 노동)

9.13. '추석날'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애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화환 진정 행사 참가(9.13, 중통·중방/ 9.14, 노동)

9.24. 베네수엘라 당 및 정부 고위대표단(단장: 디오스다도 카베요 제헌의회 의장 겸 통일사회주의당 제1부위원장) 환영 의식 참석(만수대의사당)(9.24, 중통·중방/ 9.25, 노동)

9.24.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의장 겸 통일사회주의당 제1부위원장과 회담(만수대의사당)(9.24, 중통·중방/ 9.25, 노동)

9.24. 베네수엘라 당 및 정부 고위대표단(단장: 디오스다도 카베요 제헌의회 의장 겸 통일사회주의당 제1부위원장) 환영 연회 참석 및 연설(만수대의사당)(9.24, 중통·중방/ 9.25, 노동)

서호원(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9.5. 주북 브라질 임시대리대사(루이스 펠리페 실베리우) 주최 브라질 독립(9.7.) 197주년 기념 연회 참석(9.5, 중통/ 9.6, 노동)

심영학(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9.21. 조선건축가동맹 대표단 단장으로 중국에서 진행되는 '제10차 웨이하이국제생태환경축전' 참가차 평양 출발(9.21, 중통·중방/ 9.22, 노동)

9.30. 조선건축가동맹 대표단 단장으로 중국에서 진행된 '제10차 웨이하이국제생태환경축전' 참석 후 귀국(9.30, 중통·중방/ 10.1, 노동)

안경근(평안북도 당 위원회 부위원장)

9.23. 신의주화장품공장 창립('49.9.23.) 7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9.24, 노동)

안정수(당 부위원장)

9.1.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 및 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인민문화궁전)(9.3, 노동·중방)

9.8. 당·정부의 간부들 태풍(제13호 태풍 '링링')피해복구전투 현지 지휘(9.8, 중방·조중TV/ 9.9, 노동)

9.23. 신의주화장품공장 창립('49.9.23.) 7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 및 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9.24, 노동)

오룡철(대외경제성 부상)

9.2. 리용호 외무상과 왕이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간 회담 참석(만수대의사당)(9.3, 중통/ 9.4, 노동)

9.23. 제15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9.23.~27.) 개막식 참석 및 축하연설(평양체육관)(9.23, 중통·중방/ 9.24, 노동)

9.23. 리진쥔 주북 중국대사 주최, 自國 창건 70주년 계기 연회 참석(9.27, 노동)

오수용(당 부위원장)

9.1. 평양교통운수종합대학 창립 60주년 기념 보고회 참석 및 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철도성문화회관)(9.1, 중방/ 9.2, 노동)

9.8. 당·정부의 간부들 태풍(제13호 태풍 '링링')피해복구전투 현지 지휘(9.8, 중방·조중TV/ 9.9, 노동)

오영철(문화성 부상/ 만수대예술단 단장)

9.27. 만수대예술단 조직('69.9.27.) 5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 및 기념보고(동평양대극장)(9.27, 중방/ 9.28, 노동)

오춘복(보건상)

8.31.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되는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시아 지역총회 제72차 회의' 참석차 평양 출발(8.31, 중통·중방/ 9.1, 노동)

9.10.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시아 지역총회 제72차 회의' 참석 후 귀국(9.10, 중통·중방/ 9.11, 노동)

임철웅(내각 부총리)

9.17. 국제무도경기위원회(IMGC)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축하연설(과학기술전당)(9.17, 중통·중방/ 9.18, 노동)

장창하(국방과학원장)

9.10.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재지도 시 수행(9.11, 노동·중통·중방)

장춘실(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9.11. 전국 여맹예술소조 종합공연 '일편단심 태양을 따르는 충정의 꽃으로 피어나리라' 관람(여성회관)(9.11, 중통·중방/ 9.12, 노동)

장혁(철도상)

9.1. 평양교통운수종합대학 창립 60주년 기념 보고회 참석(철도성문화회관)(9.1, 중방/ 9.2, 노동)

전광호(내각 부총리)

8.31.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차 평양에 도착한 참가자들 영접(9.1, 중방/ 9.2, 노동)

9.2.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 숙소 방문 및 격려(9.2, 중통/ 9.3, 노동)

9.3.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석(평양체육관)(9.4, 노동·중통·중방)

9.4. '제17차 전국조선옷전시회'(9.4.~6.) 개막식 참석(청년중앙회관)(9.4, 중통/ 9.5, 노동)

9.6. 김정은 위원장,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 시 동행(9.7, 노동·중통·중방)

9.6. 전국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 교육지원전시회(8.30.~9.6.) 폐막식 참석(9.6, 중통·중방/ 9.7, 노동)

9.19. 내각 주최,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선수단 축하 연회 참석 및 축하 연설(옥류관)(9.19, 중통·중방/ 9.20, 노동)

9.20.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개막식 참석(평양국제영화회관)(9.20, 중통·중방/ 9.21, 노동)

9.22. '김정숙 사망('49.9.22.) 70주기' 중앙추모대회 참석(인민문화궁전)(9.22, 중통·중방/ 9.23, 노동)

9.22. '김정숙 사망('49.9.22.) 70주기'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 화환 진정(9.22, 중통·중방/ 9.23, 노동)

9.27.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폐막식 참석(평양국제영화회관)(9.27, 중통·중방/ 9.28, 노동)

9.27. 내각 주최,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 참석(인민문화궁전)(9.27, 중통·중방)

정경택(국가보위상)

9.13. '추석날'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애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화환 진정 행사 참가(9.14, 노동)

정승일(당 부부장)

9.10.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재지도 시 수행(9.11, 노동·중통·중방)

정영남(국가영화총국 총국장)

9.20.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개막식 참석 및 개막연설(평양국제영화회관)(9.20, 중통·중방/ 9.21, 노동)

9.27.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폐막식 참석 및 폐막사(평양국제영화회관)(9.27, 중통·중방/ 9.28, 노동)

9.27. 내각 주최,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 참석(인민문화궁전)(9.27, 중통·중방)

조용원(당 제1부부장)

9.10.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재지도 시 수행(9.11, 노동·중통·중방)

주영길(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9.2. 조선직업총동맹 대표단 단장으로 베트남 방문 후 귀국(9.2, 중통·중방)

9.5. 정권수립일(9.9.) 기념 노동계급·직맹원들의 시와 노래모임 '위대한 내 나라' 참석(중앙노동자회관)(9.5, 중통/ 9.6, 노동)

지재룡(중국 주재 대사)

9.5. 정권수립(9.9.) 71주년 기념 연회 주최, 장춘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부위원장 등 참석(베이징, 주중 대사관)(9.7, 중방/ 9.8, 중통)

9.9. '2019년 베이징 세계원예박람회' 기간에 개최된 '조선의 날' 행사 참석 및 연설(베이징)(9.15, 노동·중통·중방)

9.11.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중조우호협회가 공동 주최한 정권수립(9.9.) 71주년 기념 연회 참석(베이징)(9.18, 노동·중통·중방)

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조선-라오스 친선협회 위원장)

9.10. 당 중앙위원회 주최,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단장: '판캄 위파완' 부주석) 환영 연회 참석(9.10, 중통/ 9.11, 노동)

9.12. '김일성-카이손 폼비한(前 라오스 대통령) 첫 상봉 54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참석(대동강외교단회관)(9.12, 중통·중방/ 9.13, 노동)

9.20.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개막식 참석(평양국제영화회관)(9.20, 중통·중방/ 9.21, 노동)

9.27.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폐막식 참석(평양국제영화회관)(9.27, 중통·중방/ 9.28, 노동)

9.27. 내각 주최,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 참석(인민문화궁전)(9.27, 중통·중방)

최동명(당 부장)

9.2.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 숙소 방문 및 격려(9.2, 중통/ 9.3, 노동)

9.3.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석(평양체육관)(9.4, 노동·중통·중방)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2. 산마리노공화국 국경절(9.2.) 계기 同國 집정관(니콜라 셀바, 미켈레 무라토리)에게 축전(9.2, 중방/ 9.3, 노동)

9.5. 재일본조선상공인 대표단(단장: 여장호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 부회장)과 담화(만수대의사당)(9.5, 중통·중방/ 9.6, 노동)

9.6. 에머슨 음낭가과 짐바브웨 대통령에게 로버트 무가베 前 대통령 사망 조전(9.7, 중통·중방/ 9.8, 노동)

9.9. 타지키스탄 독립기념일(9.9.) 계기 同國 대통령(에모말리 라흐몬)에게 축전(9.9, 중통/ 9.10, 노동)

9.10. 브라질 민주노동당 대표단(단장: '파울루 세르지우 바르보사' 연방 하원 민주노동당 그룹 위원장)과 담화 및 김정은 위원장 선물 접수(9.10, 중통·중방/ 9.11, 노동)

9.11. 방글라데시 노동당 대표단(단장: '라쉐드 칸 메논'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담화 및 김정은 위원장 선물 접수(9.11, 중통·중방/ 9.12, 노동)

9.13.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단장: '판캄 위파완' 부주석)과 담화 및 김정은 위원장 선물 접수(9.14, 노동·중통·중방)

9.18. 정권수립(9.9.) 71주년 경축 재일본조선인 축하단(단장: '리재철' 총련 중앙감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담화(만수대의사당)(9.18, 중통·중방/ 9.19, 노동)

9.20. 네팔 제헌절(9.20.) 계기 同國 대통령(비디아 데비 반다리)에게 축전(9.20, 중통·중방/ 9.21, 노동)

9.22. 말리 공화국 선포 59주년 계기 同國 대통령(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에게 축전(9.22, 중통·중방/ 9.23, 노동)

9.23.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대표단(단장: '페두르 데 모라이스 네투'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담화(만수대의사당)(9.23, 중통·중방/ 9.24, 노동)

9.25. 베네수엘라 당 및 정부 고위대표단(단장: 디오스다도 카베요 제헌의회 의장 겸 통일사회주의당 제1부위원장)과 담화(만수대의사당)(9.25, 중방/ 9.26, 노동·중통)

9.25.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의장 겸 통일사회주의당 제1부위원장으로부터 베네수엘라 대통령 친서 및 김정은 위원장 선물 접수(9.26, 중통·중방)

최부일(인민보안상)

9.13. '추석날'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애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화환 진정 행사 참가(9.14, 노동)

최상건(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9.19. 중국 연변대학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 출발(9.19, 중통·중방/ 9.20, 노동)

9.24. 중국 옌볜대학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후 귀국(9.24, 중통/ 9.25, 노동)

최선희(외무성 제1부상)

9.9. 외무성 제1부상 담화(9월 하순경 북미대화 용의) 발표(9.9, 중통)

최휘(당 부위원장)

9.8. 당·정부의 간부들 태풍(제13호 태풍 '링링')피해복구전투 현지 지휘(9.8, 중방·조중TV/ 9.9, 노동)

9.19. 전국 대학생 정보과학기술성과 전시회 개막식 참석(과학기술전당)(9.19, 중통/ 9.20, 노동)

9.22. '김정숙 사망('49.9.22.) 70주기' 중앙추모대회 참석(인민문화궁전)(9.22, 중통·중방/ 9.23, 노동)

태형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9.13. '추석날'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애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화환 진정 행사 참가(9.13, 중통·중방/ 9.14, 노동)

9.22. '김정숙 사망('49.9.22.) 70주기' 계기 대성산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 화환 진정(9.22, 중통·중방/ 9.23, 노동)

9.23. 베트남-조선친선협회 대표단(단장: '브엉 주이 비엔' 위원장)과 담화(만수대의사당)(9.23, 중통)

9.25. 대외문화연락위원회·조중친선협회 주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계기 연회 참석(옥류관)(9.25, 중통·중방/ 9.26, 노동)

한만혁(당 부부장)

9.4. 리수용 당 부위원장과 왕이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담화 시 배석(9.5, 노동·중통·중방)

월간 보도일지

9.1.(일)

대내 o 평양기계종합대학·평양교통운수종합대학·함흥수리동력대학 창립 60주년 기념 보고회 각각 진행(중앙방송)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 담화, '북,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20억US$ 해킹 탈취' UN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비난(중앙통신)

o '간토 대학살('23.9.1.)' 사건 비난, 과거사 문제 청산 촉구(노동신문)

9.2.(월)

대내 o 김재룡 내각 총리, 황해남도 농업부문 여러 단위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o 당과 정부 간부들,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중앙통신)

o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o 국제첨단기술상품 전람회 개막식,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전국노동자농구경기대회, 평양에서 진행(중앙통신)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북,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o 기타동향

-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석에게 '베트남 창건 74주년' 축전(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재룡 내각 총리·리용호 외무상, 베트남 정부 수상과 외무상에게 각각 축전(중앙통신)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산마리노공화국 집정관에게 '국경절'(중앙통신·중앙방송)
- 리룡남 내각 부총리, '제5차 동방경제포럼' 참가 차 러시아 방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조국전선' 대표단, '아시아사회주의나라 통일전선단체들의 토론회' 참가 차 중국 방문(중앙통신·중앙방송)

9.3.(화)

대내 o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진행' 관련 사설 발표(노동신문·중앙통신·민주조선)

o '교육체계를 더욱 완비' 선전(중앙통신)

o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청진광산금속대학 창립 60주년 기념 보고회, 1일 각각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리용호 외무상 -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 회담,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중앙통신)

o 북 정부,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환영 연회 마련(중앙통신·중앙방송)

o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일행, 안주시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 방문(중앙방송·9.4,중앙통신)

o 일본의 F-35B 스텔스 전투기 '이즈모' 호위함 탑재운용 계획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o 일본에 과거사 문제 청산 촉구(중앙통신/논평, 일본의 과거 죄악을 반드시 결산해야 한다)

o 북 선수들,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성과(중앙통신)

9.4.(수)

대내 o 제14차 전국교원대회, 3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o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 저작('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 관철에서 직업적 혁명가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전달(중앙방송)

o 제17차 전국조선옷전시회 개막식 진행(중앙통신)

o 전국군중예술부문 민족음악경연 진행, 도·시·군경연들에서 당선된 각지 기관·공장·기업소·협동농장 예술소조원들 참가(중앙통신)

o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 평양에서 진행(중앙방송)

o '북 정권수립(9·9절)' 71주년 경축 조선우표 집중 전시(중앙통신)

대남 o '미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 검토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기회' 주장 비난(중앙통신)

대외 o 독일의 과거청산 사례 언급, 일본에 과거사 문제 청산 촉구(노동신문)

o 기타동향

– 나이지리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 정권수립' 71주년 축하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

9.5.(목)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삼지연군 건설을 적극 지원한 간부·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o 김정은 위원장, 여든 번째 생일을 맞이한 근로자에게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o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대책 마련(중앙통신·중앙방송)

o 함경북도 어랑천 4호발전소 창포언제건설, 95%계선 돌파(중앙통신)

o 전국 각·관 및 호텔들 사이 요리경연, 함경남도 신흥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북 정권 수립(9·9절)' 71주년 관련 동향

–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중앙통신)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시와 노래모임 '위대한 내나라' 진행(중앙통신)

대남 o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결정 관련 보수정당 입장 비난(중앙통신/논평, 친일 매국적 행태에 비낀 정치적 야욕)

대외 o 미 공화당 상원의원의 '불안정한 독재자' 발언 비난(중앙통신/논평,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위험한 정치적 도발)

o FIFA 2022년 월드컵 아시아지역예선 경기소식(평양 김일성경기장 북한2 : 레바논0) 보도(중앙통신)

o 기타동향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재일본 조선상공인대표단 면담(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외교단과 무관단, 김정은 위원장에게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전달(중앙통신)

9.6.(금)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제13호 태풍 '링링' 관련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긴급 소집 및 지도(중앙통신·중앙방송·9.7,노동신문)

o 제13호 태풍 '링링' 관련 '태풍경보(센바람 특급경보)' 발령(9.6~7, 중앙방송)

o 농업성, 제13호 태풍 '링링'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주력(중앙방송)

o 김정은 '인민사랑·영도력' 찬양(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우리 공화국은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로 무궁 번영할 것이다)

o 전국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교육지원전시회 폐막식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o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계획' 관련 비난(중앙통신)

대외 o 기타동향

- 베트남 주석,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 정권 수립(9·9절)' 71주년 축전(중앙통신)
- 라오스 주석, 김정은 위원장에게 꽃바구니 송부(중앙통신)
- 리룡남 내각 부총리, 5일 러시아 정부수상 면담(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 당 부위원장, 브라질 민주노동당 대표단 면담(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경제 및 무역참사단, 5일 조선 우표박물관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9.7.(토)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6일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o 제13호 태풍 피해 최소화 위한 '전국가적·전당적·전군적 긴급대책 수립' 보도(중앙통신)

o 제13호 태풍 상륙지역·이동경로·예상 강수량 등 실시간 보도(중앙방송)

대남 o '국방예산 증액' 관련 우리 군 비난(노동신문)

o 제주에서 제13호 태풍으로 "많은 피해 발생" 인용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대외 o 주중 북 대사관, 5일 '정권 수립(9·9절)' 71주년 연회 마련(중앙방송)

o 기타동향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짐바브웨 대통령에게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 사망 조전 발송(중앙통신·중앙방송)

9.8.(일)

대내 o '자주·자립·자위의 길은 영원한 신념의 길' 강조 사설 게재(노동신문)

o 제13호 태풍으로 '농업부문에서 많은 피해발생 및 복구착수' 보도(중앙방송)

o 제13호 태풍에 의한 바람, 해일, 강수량 실황자료 상세 보도(중앙방송)

o 국가비상재해위, 제13호 태풍 피해 발표 "5명 사망, 3명 부상"(중앙통신)

o 당 중앙군사위, 제13호 태풍 피해복구 대책에 총력(중앙방송)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미일 해상연합훈련 및 합동군사연습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o 기타동향

- 리수용 당 부위원장, 방북 방글라데시 노동당 대표단 면담(중앙통신·중앙방송)

9.9.(월)

대내 o '정권 수립(9.9절)' 71주년 관련 동향

- 근로자·청소년학생·인민군장병들, 만수대언덕 김일성 부자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중앙통신·중앙방송)
- 신문들 기념사설 게재, '자주로 존엄 높고 자력으로 비약하는 위대한 강국' 강조(노동신문·민주조선·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정권 수립(9.9절)' 71주년 관련 동향

- 중국·러시아·쿠바·싱가포르·시리아 정상,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중앙방송·노동신문)
- 5일 도쿄 조선회관에서 경축연회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9월 하순 북미실무협상 용의"(중앙통신)

o 일본 최고재판소의 '고등학교 무상화 적용 제외 관련 조선학교의 상소 기각'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o 기타동향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타지키스탄 대통령에게 국경절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스페인 적십자사 위원장 일행, 방북(중앙통신·중앙방송)

9.10.(화)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황해남도 해주시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o 각지의 일꾼·근로자·인민군장병들, 제13호 태풍 피해 복구 투쟁 추진(중앙방송)

o 황해남·북도 지방에 '많은 비' 예보(중앙방송)

o 대안전기공장, 금야강2호발전소용 변압기 생산 성과적 결속(중앙방송·노동신문)

o 에너지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사업 전개 및 다양한 에너지자원 개발·이용 사업 본격 추진(중앙통신)

o 함흥시 회양2동 지구에 18동 584세대 새 살림집 건설(중앙방송)

o 문덕철새보호구에서 멸종위기 저어새 무리 관찰(중앙통신)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관련 미국 반응 비난(노동신문)

o 일본의 지속적인 '군사대국화'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o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비난(중앙통신)

o 리수용 당 부위원장 – 라오스 부통령 회담 진행(중앙통신)

o 기타동향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브라질 민주노동당 대표단 면담 및 '선물' 접수(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종혁 북-불가리아 친선의원단 위원 - 불가리아 조선친선의원단 위원장 회담(중앙통신·중앙방송)

9.11.(수)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현지지도 및 국방과학연구 부문 지도간부들·과학자·기술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중앙통신)

o 김정은 위원장,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o 제13호 태풍 피해 관련 '복구사업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촉구(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o 전국여맹예술소조 종합공연 '일편단심 태양을 따르는 충정의 꽃으로 피어나리라'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김정은 위원장, 시리아 대통령에게 54세 생일 축전(중앙통신)

o 일본 최고재판소의 '오사카 조선학원 상소 기각' 규탄(중앙통신·노동신문)

o FIFA 2022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스리랑카에 1:0으로 승리(중앙통신·중앙방송)

o 제8차 아시아컵 다이빙경기대회, 금 1, 은 2, 동 2 획득(중앙통신·중앙방송)

o 기타동향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글라데시 노동당대표단 면담 및 '선물' 접수(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 당 부위원장, 스페인 인민공산당·불가리아 조선친선의원단 대표단 면담(중앙통신·중앙방송)

9.12.(목)

대내 o 평양기초식품공장, 11일 '2중3대혁명붉은기' 수여모임 진행(중앙방송)

o 황해북도양생원 준공식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평양기계종합대학 등 평양시 여러 대학, 창립 60주년 예술소조공연 진행(중앙통신)

o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창립 60주년 전국과학토론회 진행(중앙통신)

o 전국생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중앙통신)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기타동향

- 박봉주 당 부위원장, 라오스 부주석 면담(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카이손 폼비한(라오스 정치인) 첫 상봉' 54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대동강 외교단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스위스 조선위원장 일행,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방문(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용선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 위해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9.13.(금)

대내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0호(9.4.),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중앙방송·노동신문)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1호(9.4.),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중앙방송·노동신문)

o 김재룡 내각 총리,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평양베어링공장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o 당·정 간부 및 무력기관 성원, '추석날' 맞아 대성산혁명열사릉·신미리애국열사릉·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에 화환 진정(중앙통신·중앙방송)

o 황해북도 태풍피해 복구사업 많은 성과, 교육부문 복구 완료 및 전력·농업부문 피해 복구 주력(중앙방송)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기타동향

– 리용호 외무상, 12일 베냉 외무상에게 재임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9.14.(토)

대내 o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 예정(중앙통신·중앙방송)

o 삼지연군 건설장, 살림집과 공공 및 산업건물 등 마감단계(중앙방송)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기타동향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라오스 부주석 면담 및 '선물' 인수(중앙방송·중앙통신)

9.15.(일)

대내 o 박봉주 당 부위원장, 황해남도 태풍 피해지역 여러 협동농장 현지 요해(중앙통신)

o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선전화 출판(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2019년 베이징 세계원예박람회' 기간 '조선의 날' 행사(9.9)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각국 대통령 및 인사,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 정권 수립(9·9절)'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9.16.(월)

대내 o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을 강조, '가을걷이와 낟알에 털기 총집중' 독려(노동신문)

o '계급교양 강화·반제계급의식 무장' 강조(노동신문)

o 중앙계량과학연구소, 현대적 화재경보기와 광전비색계 개발·도입(중앙통신)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입장불변 강조 "제도 안전·발전 장애물 제거될 때 비핵화 논의 가능" (중앙통신)

o 미국의 F-16V 대만 판매 비난(노동신문)

o 기타동향
- 베트남 국가 주석,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창건 74주년' 축전(9.2)에 대한 답전(중앙통신)
-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들과 각국 무도대표들,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9.17.(화)

대내
o '자력갱생' 통한 경제·국방의 자립·자위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
o 김일성 부자 모자이크벽화, 황해북도 송림시 여러 단위에 건립(중앙통신)
o 학생소년궁전·학생소년회관 발표회 및 전람회, 16일과 17일 청진시와 평성시에서 각각 진행(중앙통신)
o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모임,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문답, 일본 선박의 배타적 경제수역 불법 침입(8.23.~24.) 퇴거조치는 정당한 주권행사 주장(중앙통신·중앙방송)
o 기타동향
- 류명선 당 부부장, 일조우호 야마나시현 대표단 면담(중앙통신)

9.18.(수)

대내
o 박봉주 당 부위원장, 평양시내 협동농장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o 황해남도 양로원·양생원 준공식, 17일 신원군 신창리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제8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의식, 평양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o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관련 "남 당국이 납치 시인" 주장 및 송환 촉구(우리민족끼리)

대외
o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 11일 '9.9절' 71주년 즈음 베이징에서 연회 마련(중앙통신·중앙방송)
o '조선신보' 기사인용, 일본의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제도'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
o 기타동향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의사당에서 재일본조선인 축하단 면담(중앙통신·중앙방송)

9.19.(목)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o 김정은 위원장, 황해남도 옹진군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o 제14차 전국교원대회(9.3) 성과 강조 교원·교육간부 독려(중앙통신·노동신문)
o 송림김치공장, 18일 준공식 진행(중앙통신)
o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첫물 사과, 원산·함흥 주민들에게 공급(중앙통신)
o 청신무역회사 개발, '저회합활성수 다기능약돌' 소개(중앙통신)
o 전국대학생 정보과학기술성과 전시회 개막식 진행(중앙통신)

o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 창립 60주년, 전국농업부문 과학기술성과 발표회 진행(중앙통신)

o 전국재료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전시회 평양에서 진행(중앙통신)

o 전국수의축산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사리원시에서 진행(중앙통신)

o 제17차 전국낚시질애호가 경기, 사리원시 경암호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세계 구급처치의 날 적십자 구급처치활동 소개 모임, 평양교원대학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함경남도, 토량운반 및 성토작업 결과 '5개소 1천수백m 도로 복구 등 태풍피해 복구' 주력(중앙방송)

o 엄윤철, 2019년 국제역도연맹 세계역도선수권대회 금 3 및 세계기록 갱신(중앙통신·중앙방송)

o 박영미, 2019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o MBC 방송인용, 17일 '경기도 파주시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보도(중앙통신)

대외 o 기타동향

- 최상건 고등교육상(김일성종합대학 대표단), 중국 연변대학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참가차 중국 방문(중앙통신·중앙방송)
- 베트남-북 친선협회 대표단, 방북(중앙통신·중앙방송)
- 중국·러시아·쿠바 국제심사원과 중국·호주·캐나다 대표단·대표들,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차 방북(중앙통신·중앙방송)

9.20.(금)

대내 o 박봉주 당 부위원장, 평양시 안의 식료공업부문 사업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o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등 여러 단위에서 김일성·김정일 모자이크벽화 건립 및 준공식 진행(중앙통신)

o 전국 '여맹' 간부·여맹원, 김정숙 사망 70주기 회령혁명사적지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o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개막식,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제11차 전국 가설 및 착상발표회, 원산시와 사리원시에서 진행(중앙통신)

대남 o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우리 일본"(9.6, 국회) 발언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

o KBS 방송인용,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재차 발병' 사실 보도(중앙통신)

대외 o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 언급 관련,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기대' 표명(중앙통신)

o 납북의심 일본 실종자 발견 관련 일본 비난(중앙통신)

o 기타동향

-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 정권 수립(9·9절)' 축전에 대한 답전, '북-중 친선 계승 발전' 강조(중앙방송·중앙통신)
- 시리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전에 대한 '사의 표명' 답전(중앙방송·중앙통신)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네팔 대통령에게 '국경절'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앙골라 인민해방운동(MPLA) 대표단,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9.21.(토)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모범적인 강연강사들에게 '감사'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o 김정숙 '사망 70주기' 맞아 업적 찬양(중앙통신)

o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전집' 제27권 출판(중앙통신·중앙방송)

o 박정주, 2019년 국제역기연맹 세계역기선수권대회 금메달(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김정은 위원장, 쿠바 당 제1비서와 내각 수상의 '북 정권 수립(9·9절)' 71주년 축전에 답전(중앙통신·중앙방송)

o 독일 대통령 폴란드 방문 사죄 사례와 비교, 과거사 문제 관련 일본 태도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o 기타동향

- 조선건축가동맹 대표단, 제10차 위해국제생태환경축전에 참가차 중국 방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중국·인도네시아 대표단, 제15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차 방북(중앙통신·중앙방송)

9.22.(일)

대내 o 김정숙 '사망 70주기' 중앙추모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방송·중앙통신)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일본의 "'이지스 어쇼어' 배치는 북 미사일 위협 대비" 당위성 주장 비난(노동신문)

o 기타동향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말리 대통령에게 '말리공화국 선포 59주년'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 당 부위원장,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대표단 면담 및 '조선노동당-앙골라 인민해방운동 협조 의정서' 조인(중앙통신)

9.23.(월)

대내 o 박봉주 당 부위원장, 함경남도 여러 단위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o 제15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 평양체육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평양교원대학, '주산교육방법' 도입(중앙통신)

대남 o 정부 예산 증액 관련 비난, "민족공조만이 유일한 출로" 주장(우리민족끼리)

대외 o 일본의 '도쿄올림픽에 욱일기 사용'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o 2020년 아시아축구연맹 U-16선수권대회 참가자격 획득(중앙통신·중앙방송)

o 기타동향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앙골라 인민해방운동(MPLA) 대표단 면담(중앙통신·중앙방송)
- 태형철 최고인민회의 상임부위원장, 베트남 조선친선협회 대표단 면담(중앙통신)
- 베트남 조선친선유치원 원장에게 '친선훈장 2급' 수여(중앙통신·중앙방송)

9.24.(화)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모범적인 학습강사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o 김재룡 내각 총리, 낙원기계연합기업소 등 평안북도 여러 단위 현지 요해(중앙통신)
o 신의주화장품공장 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 23일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평양시 오물처리공장 등 각지 '재자원화사업 활발히 진행' 보도(중앙통신)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일본의 '도쿄올림픽에 욱일기 사용' 비난(노동신문)
o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관련 발언 비난(중앙통신)
o 일본의 '조선광업령(1915.12.24. 공포)' 언급, 과거사문제 비난(중앙통신)
o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 베네수엘라 제헌민족회의 의장 간 회담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기타동향
– 베네수엘라 당·정 고위대표단, 방북(중앙통신·중앙방송)

9.25.(수)

대내 o 개성시, 최근 5년간 고려인삼 생산 증가 및 홍삼녹차·인삼커피 등 신제품 개발(중앙통신)
o 전력공업 부문, '철탑·전주 복구 등 태풍피해 전력망 회복 사업 마감단계'(중앙방송)
o 청진샘물공장 개건 준공식 진행(중앙통신)
o 동평양지구에 현대적인 체육기지 건설 결속단계 진입(중앙방송)
o 2019 평양아동백화점 아동상품전시회 진행(중앙통신)
o 전국건설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
o 전국대학생 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 폐막식,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

대남 o 자유한국당 등 검찰개혁 반대('검찰 죽이기' 등) 비난(중앙통신)

대외 o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옥류관에서 '중국 창건 70주년' 연회 마련(중앙통신)
o 북한 여자축구, 2019년 아시아축구연맹 U-16 호주와의 준결승 3:0 승리, 결승 진출(중앙통신)
o 기타동향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리수용 당 부위원장, 베네수엘라 당·정 고위대표단 면담(중앙방송)
– 라오스 인민혁명당 싸이냐부리주 대표단, 방북(중앙방송·중앙통신)

9.26.(목)

대내 o 원산온실농장 착공식, 25일 진행(중앙방송)
o 가을철나무심기계절(10월~11월)을 맞아 전국적으로 나무모 120여 만 그루 확보 주장(중앙통신)
o 함경북도 명천메기종어장 준공식 진행(중앙방송)
o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과학성과전시회 개막식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제10차 평양악기전시회 개막식,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국제 노인의 날' 맞아 평양시 연로자 및 애호가 배드민턴경기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o 정부 대북정책 비난, "친미굴종 정책"(우리민족끼리)

o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소식 단신 보도 파주·김포(23일), 강화군(24일) 발생(중앙통신)

대외 o 리진군 주북 중국 특명전권 대사 '중국 창건 70주년' 연회 마련, 박봉주 당 부위원장 참석(중앙통신)

9.27.(금)

대내 o 김정일의 기동예술선동대 결성 40주년 기념보고회,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노동신문)

o 만수대예술단 조직 50주년 기념보고회,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폐막식,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o 국방예산 증액 관련 "군사적 망동" 거론 비난(우리민족끼리)

대외 o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 기대, 미국의 차후 동향을 주시할 것"(중앙통신)

o 북 대표단 단장, 23일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노동신문)

9.28.(토)

대내 o 박봉주 당 부위원장, 평성관개기계공장 등 평안남도 여러 단위 현지 요해(중앙통신)

o 평양시·함경남도 풍산개 품평회 진행(중앙방송·중앙통신)

o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구역에 '살림집 수백 세대 새로 건설'(중앙방송)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일본의 '전쟁으로 독도탈환' 발언 비난, "조선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재침의 전주곡"(노동신문)

o 북 대표단 단장, 23일 '전반적 의료봉사에 관한 UN총회 고위급회의' 연설(노동신문)

9.29.(일)

대내 o 김재룡 내각 총리, 평양자동화기구공장 등 인민경제 여러 단위 현지 요해(중앙통신)

o 황해북도 왕당2호저수지 준공식 진행(중앙방송)

o 함경남도 농근맹 조직 토끼 기르기 전군중적으로 전개(중앙방송)

o 2019년 가을철 마라톤애호가경기대회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UN군사령부 역할 확대 관련 미국 비난(노동신문)

o 북 대표단 단장, 26일 'UN총회 제74차 회의 비동맹운동 외무장관 회의' 연설(중앙통신)

o 기타동향

– 리수용 당 부위원장, 라오스 인민혁명당 싸이냐부리주 대표단 면담 및 선물 접수(중앙통신)

9.30.(월)

대내 o 대동강식료공장 설립 10주년 기념보고회(중앙방송)

o 국제 노인의 날 기념 토론회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제10차 평양악기전시회(9.26.~30.) 폐막(중앙통신)

대남 o "청소년들 속에서까지 조소의 대상" 주장, 자유한국당 비난(중앙통신)

대외 o UN총회 제74차 회의기간 G77 외무장관회의, 27일 진행(중앙방송)

o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제23차 총회, 21일 후쿠오카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o 기타동향

– 쿠바공화국 최고검찰소 대표단, 방북(중앙통신·중앙방송)

이달의 약사

- **09.01.**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시행(1975년)
- **09.01.** '블럭 불가담의 날'(비동맹의 날)(1981년 2월, 인도 비동맹외상회의 결정)
- **09.01.** '국제평화의 날'(1982년 6월 쿠바 제10차 세계 직맹대회 결정)
- **09.02.** 북한, 서해 NLL 무효화 선언(1999년)
- **09.02.** 비전향 장기수 63명 송환(2000년)
- **09.03.** 제6차 핵실험 실시(2017년)
- **09.04.**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1990년 9월 4일 ~ 7일, 서울)
- **09.04.** 「북한인권법」 발효(2016년)
- **09.05.**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방침(테제)」 발표(1977년, 김일성 발표)
- **09.05.** '교육절'(1977년 9월 19일 제정)
- **09.05.** '도시경영절'(1982년 8월 2일 제정)
- **09.05.** 북한 「헌법」 개정(1998년)
- **09.06.**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南) 주민 6명 사망(2009년)
- **09.08.** 「합영법」 채택(1984년)
- **09.09.** 北 정권 수립일('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1948년)
- **09.09.** '주체' 연호 시행일(1997년 7월 8일)

  ※ 김일성 출생연도(1912년)를 '주체1년'으로 정하여 산정
- **09.09.** 제5차 핵실험 실시(2016년)
- **09.11.** 제4차 노동당 대회 개최(1961년 9월 11일 ~ 18일)
- **09.1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1989년)
- **09.1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2013년)
- **09.11.** 北 제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2017년)
- **09.12.** 「붉은 청년근위대」 창건일(1970년)
- **09.12.** 「신의주 특별 행정구」지정일(2002년)
- **09.14.**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실무협의 개최(2018년)
- **09.14.**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2018년)
- **09.15.** '상업절'(1971년 11월 6일 제정)
- **09.15.**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1992년 9월 15일 ~ 18일, 평양)
- **09.15.** 시드니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2000년)
- **09.15.** 北, '화성-12형' 발사(2017년)

- **09.16.** 北, IAEA 가입(1974년)
- **09.17.** 남북 UN 동시 가입(1991년)
- **09.17.** 「남북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채택(1992년)
- **09.17.** 북·일 정상회담, '평양선언' 채택(2002년)
- **09.18.** 북한 잠수함 강릉 침투(1996년)
- **09.18.**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2002년)
- **09.18.**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2018년, 평양)
- **09.19.** 제4차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발표(2005년)
- **09.19.**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및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 채택(2018년)
- **09.20.**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1985년 9월 20일~23일)
- **09.20.** 피복공업절(1998년 2월 4일 제정)
- **09.20.**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백두산 동반 방문(2018년)
- **09.21.** 북한, 신의주 특구지정 발표(2002년)
- **09.22.** 김정숙(김정일 母) 사망일(1917년 12월 24일~1949년 9월 22일)
- **09.22.** 남북 직통전화 개통(1971년)
- **09.24.** 방직 공업절(1973년 10월 15일 제정)
- **09.24.** 전기절(1971년 9월 15일 제정)
- **09.24.**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발족일(1997년)
- **09.24.** 남북 군 당국 간 직통전화 개통(2002년)
- **09.25.**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공포일(2012년)
- **09.25.** 제1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개최(2000년 9월 25일 ~ 26일, 제주)
- **09.26.**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09년)
- **09.26.** 대북 쌀 지원을 위한 제3차 회담 개최
  (1995년 9월 26일 ~ 10월 1일, 베이징)
- **09.27.**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2010년)
- **09.28.** 「조·일 국교 정상화 추진 공동선언」 발표일(1990년)
- **09.28.**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의 개최(2010년)
- **09.29.** 「北赤」, 수해 물자 제공 제의(1984년)
- **09.29.** 남북 통일축구대회 개최 합의(1990년)
- **09.29.**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선수단, 응원단 참가(2002년)
- **09.30.**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2013년